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도시계획학 석사 학위논문

# 기후변화 위험인식과 기후변화정책 수용도의 결정요인 분석

- 서울시 거주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

2020년 1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환경계획학과 환경관리학 전공

박 정 민

# 기후변화 위험인식과
# 기후변화정책 수용도의 결정요인 분석

- 서울시 거주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윤 순 진

이 논문을 도시계획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환경계획학과 환경관리학 전공

박 정 민


박정민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2월

위 원 장 _____ 박 인 권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김 민 정 _____ (인)

위 원 _____ 윤 순 진 _____ (인)

# 국문초록

주요어 : 기후변화, 위험인식, 정책수용도, 기후변화정책, 위험소통
학 번 : 2019-20298

성공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정책설계는 물론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의 국민의 지지와 적극적 참여 확보가 중요하다. 특히 시민참여형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대 사회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인식과 정책지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높은 기후변화인식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1%가 넘는 58개국을 대상으로 한 기후변화성과지수(CCPI)에서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인식과 대응행동 간 비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최근 조사결과 20-30대의 기후변화 심각성 인식과 체감 수준이 낮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들의 기후변화인식에 대한 추가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20-30대의 기후변화 위험인식과 기후변화정책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후변화 위험인식 모형에서 인지적 요인인 기후변화 실재 믿음과 세부 재난-기후변화 연관성 인식은 정(+)의 영향을 미치며 가치적 요인인 물질주의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책수용도 모형에서는 세부 재난-기후변화 연관성 인식과 정부신뢰가 정(+)의 영향을 미치고 기후변화에 대한 부정적 감정 또한 정(+)의 영향을 미쳐 정책수용판단에 있어서 감정 휴리스틱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적 사실에 기반해 기후변화 실재와 파생되는 다양한 현상을 설명하는 위험소통의 필요성과 청년층의 기후변화 위험인식과 정책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상기후현상 위주로 이해되어 온 기후위험에 신종감염병(covid19)을 포함해 기존 기후위험의 개념적 확장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목적 및 구성 ····· 5
3. 연구 흐름도 ····· 8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의 고찰 ····· 9
1. 이론적 배경 ····· 9
1) 위험인식 ····· 9
2) 기후변화 위험인식 ····· 14
3) 정책 수용도 ····· 16
4) 기후변화정책 수용도 ····· 18

2. 선행연구 검토 ····· 21
1) 기후변화 위험인식 ····· 21
2) 기후변화 대응정책 수용도 ····· 24

Ⅲ. 자료 및 연구방법 ····· 27
1. 연구가설 ····· 27
2. 변수 정의 및 측정도구 ····· 30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32
1) 조사표본 및 자료수집 ····· 32

2) 자료 분석 방법 ····· 34

Ⅳ. 분석 결과 ····· 35

1. 표본특성 ····· 35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35

2) 기술통계 분석 ····· 36

2. 측정도구의 검증 ····· 41

3. 가설검증 ····· 42

1) 집단 간 차이 분석 ····· 42

2) 상관관계 분석 ····· 46

3) 기후변화 위험인식 모형 ····· 49

4) 기후변화정책 수용도 모형 ····· 56

Ⅴ. 결론 ····· 63

1. 요약 및 시사점 ····· 63

2. 연구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제시 ····· 67

■ 참고문헌 ····· 69

■ 부록 ····· 74

# <표 차례>


<표 1> 위험의 분류 ····· 11
<표 2> 위험특성과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 ····· 13
<표 3> 기후변화 완화정책과 기후변화 적응정책 분류 ····· 20
<표 4> 설문지 구성 ····· 31
<표 5>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35
<표 6> 기술통계량 ····· 39
<표 7>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 결과 ····· 42
<표 8> 성별, 학력, 소득에 따른 기후변화 위험인식 차이 분석 ····· 43
<표 9> 연령, 정치성향에 따른 기후변화 위험인식 차이 분석 ····· 44
<표 10> 성별, 학력, 소득에 따른 기후변화정책 수용도 차이 분석 ····· 45
<표 11 연령, 정치성향에 따른 기후변화정책 수용도 차이 분석 ····· 45
<표 12> 상관관계 분석 ····· 48
<표 13> 기후변화 위험인식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 51
<표 14> 기후변화 위험인식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재난별) ····· 52
<표 15> 기후변화정책 수용도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 결과 ····· 57
<표 16> 기후변화정책 수용도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 결과(재난별) ····· 58

# <그림 차례>

<그림 1> 연구 흐름도 ····· 8
<그림 2> 기후위험 체계(Climate Risk Structure) ····· 15
<그림 3> 기후변화 위험인식 모형(CCRPM) ····· 21

# Ⅰ. 서론

## 1. 연구의 배경

‘위험사회’로 대표되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현재 인류가 직면한 대표적인 위험은 바로 기후변화이다. 기후변화는 단순 환경위험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측면에서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현재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체감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갈수록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대부분의 인수공동감염병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현상과 도시화 등으로 인해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인간과의 물리적 거리가 점차 가까워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Nelson, B, 2020; 윤순진, 2020).

실제로 코로나19와 기후변화의 연관성에 있어서 코로나19가 기후변화 심각성에 대한 전 세계적 인식을 일깨웠다는 설문조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14개국 성인 2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2020년에 실시한 IPSOS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의 약 71%가 “장기적으로 기후변화는 코로나19만큼 심각한 사안”이라고 응답했고 65%는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과정에서 기후변화를 우선순위로 고려해야 한다.”에 동의하였다. 지난 9월 발표된 우리나라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한 갤럽 설문조사에서도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크게 느끼게 된 계기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올해 폭우를 선택하였고 코로나19와 폭염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코로나19와 기후변화가 관련 있다.’라

는 주장에 대해서 응답자의 3분의 2(66.7%)가 매우 또는 대체로 동의한다고 답변해 상당수가 코로나19 사태 또한 기후위기와 연관 지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현재 코로나19 사태의 경험이 사람들의 생활과 행동양식에 많은 영향을 끼치면서 사람들의 기후변화인식에 영향을 미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반드시 향후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 2007년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 국민 대부분인 97%가 기후변화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92.6%가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여긴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1%가 넘는 58개국을 대상으로 측정(1~3위 없이 4위부터 순위를 매겨서 총 61위)한 기후변화성과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CCPI) 평가에서 한국은 2020년에는 61개국 중 58위, 2021년에는 61개국 중 53위로 2021년 지수가 조금 상향되긴 했지만 둘 모두 온실가스 배출 저감 노력이 '매우 미흡(very low)' 한 범주에 속한다.

이러한 높은 기후변화인식과 미흡한 기후변화정책 간의 괴리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높은 기후변화 인식 수치에만 집중하거나 대부분의 기후변화인식 관련 선행연구들이 기후변화의 존재 여부, 심각성 정도를 기본적인 수준에서만 측정했기 때문에(환경부, 2007; 오도교 외, 2010; 한현진 외, 2010; 송보경 외, 2012; 김옥 외,2013) 구체적인 기후변화인식 수준을 포착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를 보완하고자 이승한・윤순진(2014), 한빛나라 외(2020) 등은 다양한 기후변화인식 유형을 심층면접을 통해 도출했지만 여전히 일반 공중의 기후변화 인식과 기후변화정책 시행 혹은 정책수용도 간 괴리가 왜 발생하는가에 대해서는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기후변화인식에서 주목할 점은 기후위기의 당사자성이 높은 다음 세대, 즉 젊은 층의 기후변화 인식이 특히 낮다는 점이다. 전 세계 40개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인식을 비교한 Gallup(2020) 보고서에 따르면 Z세대[1]와 밀레니얼 세대가 기후변화가 실재한다는 인식과 인간 행위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인식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심각성을 묻는 항목에서도 베이비 부머(Baby Boomers) 세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한국의 경우 기후변화의 실재 여부를 묻는 항목에 30대-60대 모두에서 90% 이상이 동의한 것에 비해 20대(84.2%), 30대(87.7%)로 비교적 낮은 동의수준을 보였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받을 시점에 대해 '이미 영향을 받고 있다.' 라는 응답에 전체 평균이 62%인 데 비해 20대는 54.4%로 기후변화문제의 체감 정도와 심각성 인지가 낮게 나타났으며 '기후변화의 효과는 먼 미래의 일이라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라는 응답에 대해서도 다른 세대에서 4-5%의 동의수준을 보인 것에 비해 20대는 비교적 높은 동의수준(7%)을 보이며 기후변화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 또한 먼 것으로 나타났다(KEI, 2019).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19 위기의 극복방안으로서 적극적인 기후변화대응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2] 국내에서도 그린뉴딜을 통한 적극적

1) Z세대에 대한 통합된 학문적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태어난 세대를 뜻하며(한국의 경우 1995년생 이후),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까지 출생한 세대를 의미하여 20-30대를 포괄하는 세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15)

2) 20년 4월 9일 17개 EU 회원국은 유럽 그린딜을 활용해 코로나19을 극복해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발표 이후 유럽의회는 녹색회복동맹(Green Recovery Alliance)를 창설하였다. EU의 그린딜 움직임에 힘입어 미국 민주당도 그린뉴딜(Green Newdeal)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현재의 코로나19의 경제회복 방안이 전 세계 GDP를 약 100조 달러 증가시킬 수 있는 에너지전환

인 기후변화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젊은 층의 기후변화인식이 왜 특히 낮게 나타나는지, 이들의 기후변화인식과 정책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젊은 층은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피해의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후변화대응정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를 수용하고 변화된 정책을 행동으로 실천해나가야 하는 핵심주체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상기후를 비롯한 다양한 기후변화위험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있음에도 위험은 개인, 지역, 세계 등 공간적 규모(scale)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며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위험이 객관적 위험도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후변화 위험관리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아직 리스크와 불확실성에 대한 정의가 학문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기후위험(Climate Risk)'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분류체계는 국내외를 통틀어 존재하지 않는다. 기후변화와 연관된 자연재난 경험이 기후변화에 대한 믿음,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들은 다수 존재하지만 대부분 폭염(Howe, 2019; Howe and Leiserowitz, 2013; McCright et al., 2014;), 이상강수와 홍수(Howe, 2018; Whitmarsh, 2008)와 같은 극한이상기후로 한정되어 있으며 국내연구의 경우 위험인식의 대상이 원자력이나 자연재해로 한정되어 비가시적이고 복합적인 현재의 위기(risk)보다는 지진과 같은 특정 재난(disaster)에 대한 경험이 해당 재난의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그쳤다.

앞으로의 기후위험이 여러 하위 위험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복합위험(compound risk)의 특성을 보일 것이라는 점에서 성공적인 기

(energy transition)임을 보고서를 통해 발표했다.

후변화대응을 위해서는 기후위험-세부 하위 위험 간 연관성을 설명하는 위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책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유엔 재난위험 경감사무국(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 UNDRR)에 따르면 2000-2019년 사이에 기후변화 영향은 지난 20년 동안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자연재해(홍수, 가뭄, 태풍, 폭설)로 나타났으며 극단적인 이상기후뿐만 아니라 최근 기후변화의 간접적 영향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SARS, MERS)의 증가 위험성에 대해서도 WHO는 경고한 바 있다(WHO, 2018). 이러한 상황에서 기후위험의 하위 위험으로 전 세계적인 전염병인 코로나19와 홍수・호우, 폭염을 포함한 이 연구는 하위 위험 유형 간의 상호 비교를 통해서도 아직 명확하게 개념화되지 않은 기후위험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는 시도가 될 수 있다.

## 2. 연구목적 및 구성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국인의 기후변화인식과 기후변화대응 정도의 불일치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에 초점을 두고 각각의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며, 특히 기후변화의 당사자성이 높은 젊은 세대가 오히려 기후변화를 '내'가 겪을 수 있는 일로 느끼지 않는 현상에 착안하여 이들의 기후변화위험인식과 정책 수용도에 대한 이해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세분화할 수 있다.

첫째, 이 연구는 기후변화 인식 여부가 아닌 위험인식(risk

perception) 프레임을 차용하여 젊은 층의 기후변화위험인식 수준을 측정하고 이러한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현상을 '알고 있는지' 혹은 '심각하게 여기는지'의 여부를 주로 살펴본 기존 분석에서 더 나아가 객관적 기후변화위험을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어느 수준의 위험으로 느끼는지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둘째, 기후변화대응에는 에너지전환과 같은 사회구조적 변화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기존에 많이 다뤄진 개인의 행동의지(willingness to act)를 확장한 기후변화정책 수용도를 또 다른 종속변수로 하여 영향요인을 분석한 후 위험인식 모형과 정책수용도 모형을 비교한다. 셋째, 독립변수에 있어 재난의 직접경험(direct experience)이 해당 재난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고 기후변화에 대한 현저성(salience)을 높임으로써 기후변화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표적인 이상기후현상인 홍수·호우, 폭염과 더불어 현재 가장 심각한 위험인 코로나19의 경험·위험인식이 두 종속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인식과 기후변화정책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과 구성을 기술한다.

제2장에서는 먼저 위험과 위험인식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한다. 이후 기후변화위험인식, 대응행동의지, 정책수용에 관한 선행연구를 폭넓게 살펴봄으로써 각각의 영향요인들을 탐색하였다.

제3장에서는 먼저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후 종속변수와 설명변수의 정의와 측정 도구를 정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이후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에 대해 논한다.

제4장에서는 각 변수들의 기초 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위계적 회귀모형과 다중회귀모형을 통해 추정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먼저 ①기후변화위험인식의 결정요인을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유의변수와 모형별 설명력을 분석한다. 이후 세부 재난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재난 종류에 따른 기후변화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다. 이후 ②기후변화정책 수용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유의한 변수를 도출하고 기후변화위험인식과 기후변화정책 수용도 각각의 결정구조를 비교・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실천적・정책적 함의를 논의하며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구성과 흐름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 서론 |
| --- |
| ○ 연구의 배경<br>○ 연구목적 및 구성<br>○ 연구 흐름도 |

↓

|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의 고찰 |
| --- |
| ○ 이론적 배경<br>○ 선행연구 검토 |

↓

| 연구 설계 |
| --- |
| ○ 연구 모형 및 가설 설정<br>○ 변수 정의 및 측정 도구<br>○ 자료 수집 |

↓

| 실증 분석 |
| --- |
| ○ 표본 특성 검토<br>○ 측정 도구의 검증<br>○ 가설 검증 |

↓

| 결론 |
| --- |
| ○ 연구의 요약 및 정책적 함의<br>○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그림 1〉 연구 흐름도

#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의 고찰

## 1. 이론적 배경

### 1) 위험인식

위험 연구에 있어서 위험(risk)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데 위험을 인식하는 주체와 성격에 따라 크게 3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위험이 실제적으로 존재하느냐 또는 인간의 의식에 따라서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크게 객관주의와 구성주의적 입장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구성주의에서는 위험을 인식하는 주체가 개인이냐 사회이냐에 따라 주관주의와 구성주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위험객관주의(risk objectivism)는 사회에 존재하는 위험이 객관적으로 관찰과 측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초기 위험연구들은 대체로 위험객관주의에 입각하여 피해를 예상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측정 방법을 개발하여 각종 위험을 계량화 하고 위험수준을 일반화하고자 하였다(심준섭, 2009; 차용진, 2012). 이러한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을 목표로 위험의 총량을 물질적 손실의 발생확률과 손실 강도의 함수(Risk = Probability × Strength)로 정량화하였다. 이렇게 계산된 위험이 이른바 객관적 위험 이며 이러한 방식은 위험의 기술적 평가모형(the technical model of risk)이라고도 불린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객관주의 연구는 여러 한계에 부딪히는데 바로 확률적 개념인 위험은 불확실성을 수반하는데 이것이 위험에 대한 인식 차이를 야기해 복잡한 의견 표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위험의 주관적 인지는

개인의 경험과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문가가 평가한 객관적 위험과 일반 공중의 인식된 위험(perceived risk)은 상당한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와 같은 전문가로 이루어진 위험관리 주체와 일반 공중의 위험인식차이는 갈등을 유발하여 체계적인 위험관리의 장애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이지윤, 2018 재인용).

이러한 위험객관주의 접근법으로 인해 초래되는 사회갈등을 분석하면서 위험에 대한 주관주의적 입장(risk subjectivism)이 등장하게 된다. 위험 주관주의 입장은 일반인들이 개인적 관점에서 어떻게 위험을 인식하는지를 연구대상으로 삼는데 각 개인별로 노출된 위험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을 주관적 위험이라 하고 인지심리학의 다양한 측정방법을 동원하여 위험의 특성에 대해서 분석하고 평가한다. 가장 대표적인 연구방법은 심리측정패러다임으로 다양한 위험의 특성에 대한 인식이 개인의 위험인식과 가지는 연관성을 탐구한다(주영기・유명순, 2016). 위험이 가진 속성에 대한 개인의 평가로 위험인식이 형성된다고 보는 심리측정패러다임은 특히 정신 물리적 척도화(psychological scaling)와 다변량 분석기법(multivariate analysis technique)을 사용하여 위험인식을 양적으로 표현한다는 특징을 지닌다(Slovic, 2012).

셋째, 위험 구성주의적 입장(risk constructivism)이 존재하는데 이 접근법에서 위험은 사회적 요소의 집단적 구성물로 이해된다(김영대・박관규, 2015). 다시 말해, 위험은 사회적 맥락 안에서 인지되는데 인간은 수많은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이를 모두 인지할 수 없을뿐 아니라 모두 위험으로 인식하지도 않으며 사회적 맥락 안에서 위험으로 인지되는 위험에만 집단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이다. 특히 위험의 인지와 평가는 과학, 정치, 여론을 통해 정보에 의해 매개되며

정보가 유통되는 사회적 조건에 강하게 의존한다고 본다. 다시 말해, 위험구성주의 관점에서는 사람들의 태도가 개인의 심리적 과정이 아니라 개인이 속한 집단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 이러한 위험의 분류와 속성에 대한 논의는 아래 <표1> 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위험 주관주의 입장에서 위험을 정의하고 있는데 기후위험(climate risk)과 이의 하위 위험(sub-risk)로서의 코로나19와 홍수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경험과 이로 인한 인식을 다룬다는 점에서 위험 주관주의 관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표 1〉 위험의 분류

| 분류기준 | **위험 객관주의** | **위험 주관주의** | **위험구성주의** |
|---|---|---|---|
| **위험 인식주체** | 전문 과학자 | 일반인(개인) | 일반인<br>(사회집단) |
| **위험 인식과 평가기준** | 위험= 확률*<br>(예상)피해규모 | 개인의 주관적 경험(두려움, 친숙도 등) | 사회별 집단적 인식기제(미디어, 지역문화 등) |
| **위험의 실존여부** | 객관적으로 실존 | 인식주체의 인식여부에 따라 결정 | |

출처: 노진철(2010)의 논의를 재구성

이러한 개인의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이 논의가 되어왔는데 다양한 학자의 논의를 종합하면 ①자발성(voluntariness), ②심각성(severity), ③통제가능성(controllability), ④친숙도(familiarity), ⑤개인의 지식수준(individual knowledge), ⑥편익(benefit) ⑦미래 세대의

위협(effects on future generation), ⑧가역성(reversibility), ⑨예방가능성(preventability) 등이 제시될 수 있다. 먼저, 자발성은 자의에 의해 위험상황에 직면하거나 행동을 선택하는 정도로 위험인식에 부(-)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심각성의 위험에 따른 결과가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로 심각성에 대해 높이 평가할수록 위험인식을 높아진다. 다음은 위험에 대한 통제력이다. 보통의 경우 위험에 대해서 통제력을 가진다고 느끼는 사람은 위험을 좀 더 견뎌 내거나 큰 위험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위험의 통제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경우 위험수용의 정도가 높아진다고 말할 수 있다(김영욱, 2008 재인용). 비행기 추락사고로 인한 사망확률보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확률이 훨씬 높음에도 비행기 사고를 더욱 위험하게 느끼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위험에 대한 통제가능성의 여부이다. 또한 위험에 대한 친숙도가 높을수록 위험인식이 경감되며 위험에 대한 개인의 지식보유 정도 또한 위험인식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마지막으로 위험수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의 정도도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데 위험을 감수하면서 얻는 편익이 크면 클수록 위험인식을 낮추고 위험수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Baird, 1986, 김영욱, 2008 재인용). 이와 같이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관계를 정리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위험특성과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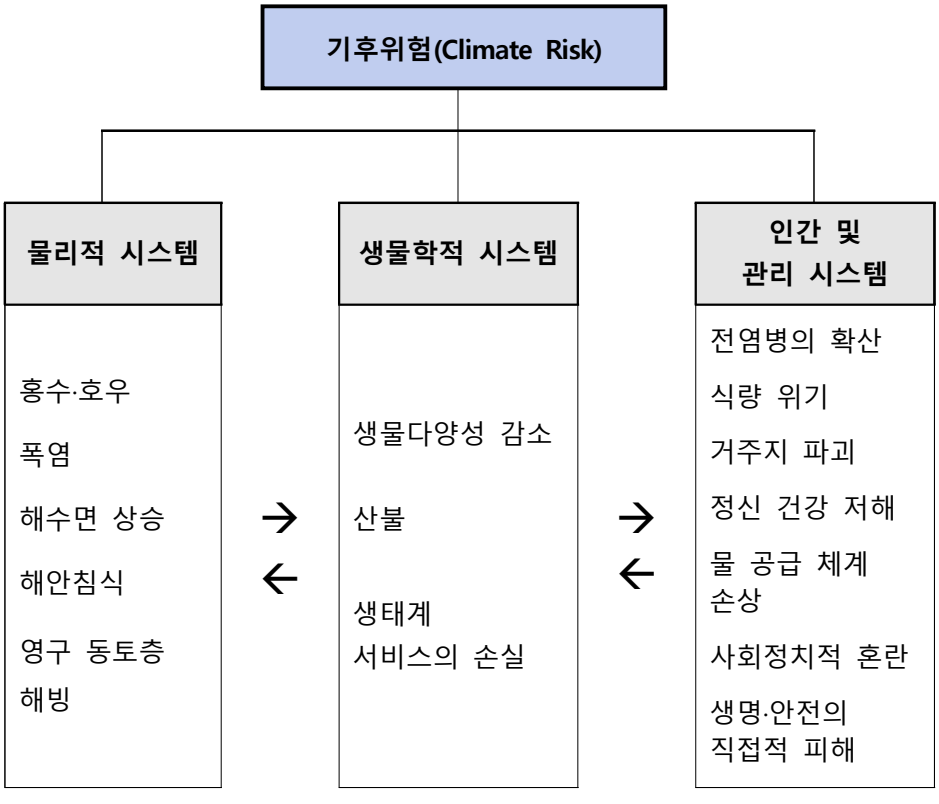
| 위험 특성 | 설명 | 영향 |
|---|---|---|
| 자발성 (voluntariness) | 자의에 의해 위험 상황에 직면하거나 행동을 선택한 정도 | - |
| 심각성 (severity) | 위험에 따른 결과가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 + |
| 통제 가능성 (controllability) | 인위적으로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정도 | - |
| 친숙도 (familiarity) | 위험에 대해 친숙하다고 느끼는 정도 | - |
| 개인의 지식수준 (individual knowledge) | 개인적으로 위험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 - |
| 편익 (benefit) | 위험수용 및 위험에 대한 노출로 인해 얻는 이익의 정도/ 이익이 분명한 정도 | - |
| 미래 세대의 위협 (effects on future generation) | 위험으로 인한 피해가 미래 세대에 발생하는 정도 | + |
| 가역성 (reversibility) | 위험에 대한 피해를 돌이킬 수 있는 정도 | - |
| 예방가능성 (preventability) | 위험으로 인한 사건 또는 사고의 예측 및 예방이 가능한 정도 | - |

출처 : Slovic et al.(1980), 차용진(2012), 김영평 외(1995), 김영욱(2008), 이지윤(2018)의 논의를 재구성

### 2) 기후변화 위험인식

앞서 위험에 대한 논의를 살펴봤을 때 기후변화는 '위험'으로 인식할 수 있는 충분한 특징들을 지닌다. 기후변화 자체와 이로 인한 하위 위험들이 예측에 있어서 큰 불확실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극한 기상현상으로 인해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재난의 발생원인을 기후변화로 하나만으로 단정하기가 어렵다. 또한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를 손쉽게 감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기후변화의 결과인 해수면 상승, 평균 온도 상승 이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들은 인간의 통제가능성을 넘어 여러 기후변화 현상의 연결고리조차 완전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이로 인한 모든 피해들은 비가역적인 특성을 지닌다. 인식적 측면에서 위험은 개인, 지역, 국가, 세계 등 공간적 스케일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며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위험의 정도가 각자 다르고 그것이 객관적 위험도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관리는 쉽지 않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기후위험(climate risk)는 여러 잠재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험의 종류, 정도에 대한 분류가 어렵다. 또한 위험에 대한 개인의 경험이나 사회적 맥락에서의 동의가 기후위험의 인식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기후변화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기온변화와 날씨의 변동과 같은 자연적인 과정 속에 매몰되어(buried)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기후변화 자체를 체감하기는 어렵다. L.Whitmarsh(2008)는 이러한 손에 잡히지 않는 특성(intangibility)을 사람들이 기후변화를 주요한 위험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응행동을 취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로 제시

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후변화위험을 어떻게 유형화하고 인식해야 할까? 이 연구에서는 기후위험(climate risk)을 기후변화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위험, 재난과 같은 하위 위험(sub-risk)과 이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개념화한다. 각각의 하위위험과 기후변화 간의 관계에 대해 통합된 연구는 없지만 세계보건기구(2018)와 IPCC 제5차 평가보고서(2014) 등에서 기후변화가 직·간접적 원인으로 규명되는 다양한 영향과 향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아래의 그림 2는 기후위험과 하위 위험의 유형, 이들 간의 상호관계를 보여준다.




〈그림 2〉 기후위험 체계(Climate Risk Structure)

출처: IPCC(2014b)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 3) 정책 수용도

정책집행은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지시를 실행에 옮기는 과정으로 정책집행을 통해 정책 관련 개인·집단에 영향을 주거나 통제·규제함으로써 정책대상의 행태 변화를 유도한다(김관보 외, 2013). 이러한 정책집행에 대한 반응은 정책불응(policy noncompliance), 정책순응(policy compliance), 정책수용(policy acceptance) 등으로 나타난다(이지윤, 2018 재인용). 정책불응은 정책지시 혹은 집행과정에서 요구되는 행동규정에 일치하지 않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책순응은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결정된 정책지시, 지침, 행동규정에 일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뜻한다(김관보 외, 2013). 한편 정책순응과 정책수용은 결과적으로 정책이 의도한 외부적 행동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정책수용의 경우 내부 인식의 변화가 동반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순응은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일정한 행동 규범에 일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수용은 외적 행동과 내면적·심리적 가치체계가 규범에 일치하는 것으로 순응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성욱준, 2013). 정책수용은 수동적으로 정책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정책의 목표와 그 수단에 대해 동의하여, 정책으로 인한 영향을 감수하고자 하는 능동적·자발적인 태도를 표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정책수용은 정책순응에 비해 정책대상의 가치, 신념, 태도 등을 심도있게 파악하는데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윤준희, 2013; 이지윤, 2018 재인용). 정책수용의 주체는 크게 정책집행자, 중간매개집단, 정책대상집단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정정길 외, 2011). 이때 정책집행자는 정책지시 수행에 필요한 합법적인 권위, 책임, 공공자원을 부여받은 정부 내외 행위자이며 중간매개집단은 정책집행을 위해 책임을 위임받은 개인

또는 집단이다. 정책대상집단은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는 조직 또는 집단에 속한 개인이다(하상근, 2011). 정책대상자의 정책수용도를 높이는 것은 정책목표 달성의 핵심요인으로(하동엽・김강섭, 2017) 직・간접적인 정책대상자의 정책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따라 성공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이때 정책의 수용 또는 거부를 양자택일의 문제로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실제 정책과정에서 정책에 대한 완전한 수용이 나타나는 것은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특정 정책에 대해 부분적으로 순응하고 동시에 부분적으로 불응할 가능성이 크다(이지윤, 2018). 이러한 정책수용도를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변수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①정책에 대한 동의, ②정책과정에 대한 동의, ③불편감수, ④협력의지, ⑤정책인지, ⑥정책효과에 대한 인식 등이 있다(윤준희, 2013; 하동엽・김갑성, 2017)

한편 일부 연구에서는 정책수용도를 행동의도와 정책지지의 연장선에 있는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는 개인의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통제, 자신감이 실천의지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는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제시한다. 이와 유사하게 박경순(2014)은 행동의도와 개인의 정책지지를 유사한 개념으로 간주하고 개인의 정책지지가 결과적으로 정책수용으로 이어질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이 연구에서는 정책수용도를 정책지지의 연장선에 있는 개념으로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꺼이 행동규정 및 규칙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며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태도로 개념화하고 정책수용 주체는 정책대상자로 한정한다.

### 4) 기후변화정책 수용도

일반적으로 기후변화정책은 온실가스 배출원의 감축 및 흡수원 증가를 위한 완화정책(mitigation policy)과 기후변화 위험에 대응하고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적응정책(adaptation policy)으로 구분된다(IPCC, 2007; 2014). 각 정책은 상호의존적·보완적인 성격을 가지지만 특히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적극적으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시행할 수 있는 적응정책의 폭이 줄어들고 인간·자연 시스템의 적응능력을 벗어나는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당한 사회·경제·환경적 비용을 야기할 것으로 예측된다(고재경, 2011). 또한 기후변화 완화정책이 기후변화 심화를 저지하는 사전적 처방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각 국가는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을 채택 및 발효하는 등 전 세계 차원에서의 완화정책의 수립·시행을 강조해왔다. 한편 최근에는 전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들이 점차 증가하면서 기후변화적응의 중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다. 기후변화 적응정책은 기후변화로 인해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피해를 회피·감소시키거나 유익한 기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책이다(IPCC, 2007). 기후변화적응정책의 예로는 폭염, 한파 등에 대비한 보건 정책, 홍수 및 가뭄 등에 대비한 물 관리 정책 등이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정책의 수용도는 정책유형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Klein et al., 2007; 고재경, 2011). 적응정책의 경우 지역마다 기후변화의 취약성과 적응능력이 다르므로 적응정책의 범위는 지역 단위로 국한되며, 비용과 편익이 모두 지역 내에서 발생하고 정책의 효과가 비교적 즉각적으로 나타나 무임승차의 문제가 적고 정

책수용도가 높은 경향이 있다(Klein et al., 2007; 고재경, 2011). 반면 완화정책은 대부분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등 명확한 목적으로 수립 및 시행되며(황인창·김대수, 2016), 대부분 정책은 규제정책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개인·기업 등의 활동에서 야기되는 온실가스 배출 문제 및 흡수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시행을 막거나 지연시키려는 행동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재경, 2011). 또한, 완화정책에 반대하지 않더라도 적극적인 정책지지가 나타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DeBono et al., 2012).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는 시간적 지연성을 지니기 때문에 감축비용은 특정 시기의 특정 집단에 편중되는 반면, 편익은 전 지구적으로 공유하거나 미래 세대에게 발생하므로 정책의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이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고재경, 2011; 황인창·김대수, 2016).

기후변화대응정책이 일반적으로 완화정책과 적응정책으로 구분되어 논의되고 있으며 두 정책의 수용도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결과(Klein et al., 2007; 고재경, 2011; 황인창 · 김대수, 2016)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정책 수용도를 완화정책과 적응정책 수용도로 구분하였다. 하지만 기초통계분석 이후 회귀분석에서는 두 변수를 합성해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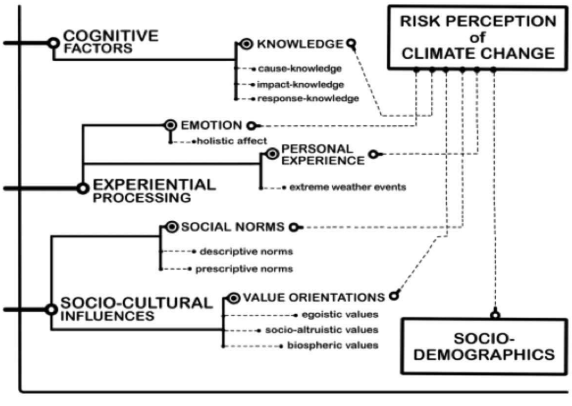
〈표 3〉 기후변화 완화정책과 기후변화 적응정책 분류

| 구분 | 기후변화 완화정책<br>(mitigation policy) | 기후변화 적응정책<br>(adaptation policy) |
|---|---|---|
| 정의 | 기후변화 원인 물질인<br>온실가스 배출 감소 및<br>흡수원 확대를 목적으로 함 | 기후변화로 인한 현재/미래의<br>피해를 회피·감소시키거나 유익한<br>기회로 전환하는 정책,<br>기후회복력 향상을 목적으로 함 |
| 공간적<br>범위 | 전 지구적 단위의<br>노력과 협력 필요 | 지역, 국가 단위의 노력과<br>협력이 필요하며 각 지역마다<br>정책 내용 상이 |
| 시간적<br>범위 | 정책 효과가 중장기적 | 정책 효과가 비교적 단기간임 |
| 비용<br>/편익 | 비용은 특정 집단에 편중,<br>편익은 전 지구적으로 공유<br>또는 미래 세대에서 발생 | 동일 지역의 집단 및 개인에게<br>비용과 편익이 모두 발생 |
| 주요<br>분야 | 에너지, 산업, 교통,<br>폐기물, 건물 | 물 관리, 보건, 자연재해 관리 |

## 2. 선행연구 검토

### 1) 기후변화 위험인식에 관한 선행연구

기후변화 위험인식은 사회경제적 특성, 피해경험의 유무, 태도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대표적 연구로 van der Linden(2015)은 기후변화인식을 둘러싼 다양한 연구를 종합하여 기후변화 위험인식에 대한 통합모형(Climate chagne risk perception model, CCRPM)을 아래 〈그림 3〉과 같이 제시한다. 해당 모형을 적용하여 영국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젠더, 정치적 정당, 지식, 사회적 규범, 가치 정향, 극단적 날씨에 대한 경험이 기후변화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Akerlof et al.(2013)는 개인적 경험, 문화적 세계관, 정치적 이념, 장소애착, 인구통계학적 변수가 지역적 차원의 기후변화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기후변화 인식의 영향요인들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CCRPM을 바탕으로 인구통계학적 요인, 인지적 요인, 경험적 요인, 가치적 요인으로 나눠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The Climate Change Risk Perception Model (CCRPM)
(van der Linden, 2015)

먼저 인구통계학적 요인 중 연령은 중요한 변수인데, 연령이 높을수록 홍수 혹은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인식이 낮거나 기후변화영향에 대한 우려와 적응을 위한 지불의사가 낮다(고재경・이우평, 2016 재인용). 또한 교육이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홍수 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고(Burningham et al., 2008), 에너지 절약수단을 구매하거나 홍수 저감시설에 투자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Bichard and Kazmierczak, 2012). 미국의 기후변화인식 연구를 보면 고령, 남성, 정치적 성향에 있어 보수적 성향인 경우 기후변화인식이 낮고 더 나아가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M.Andrews, 2020 재인용).

두 번째로, 인지적 요인 중 기후변화에 대한 지식(knowledge)은 양면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Brody et al.(2008)의 연구에서 지식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Menny et al.(2011)의 연구에서 기후변화 지식의 증가는 진보성향의 그룹에서는 기후변화위험인식을 높였지만 보수성향의 그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Tobler et al.(2012)의 연구는 기후변화에 대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지식이 기후변화 우려와 정(+)의 관계, 기후변화에 대한 회의주의적 시각과 부(-)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실증하고 있다. van der Linden(2015)은 기후변화에 대한 지식을 원인에 대한 지식(cause-knowledge), 영향에 대한 지식(impact-knowledge), 대응방안에 대한 지식(response knowledge)로 구분하였으며 세 지식변수 모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경험적 요인은 크게 이상기후의 기후변화 현상의 주관적 체감 정도 및 재난경험 여부에 관한 연구와 감정(Affect)에 대한 연구로 나뉜다. 먼저 재난경험 여부와 기후변화 영향(impact of climate change)의 인식 정도는 기후변화인식뿐만 아니라 이후 정책

지지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수인데 직접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적응행동을 적극적으로 지지·참여하는 경향을 보이며(Harreis, 2012), 반면 홍수 취약지역에 살고 있어도 직접적인 경험이 없으면 위험에 대한 이해가 낮고 적응행동을 취할 동기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Harvatt et al., 2011). 흥미로운 것은 경험한 재난 혹은 위험의 종류에 따라서 기후변화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기도 한다는 점이다. 남잉글랜드의 홍수와 미세먼지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심각한 미세먼지 경험은 주민들의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간의 상관성을 인식하는 정도와 친환경 행동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친 것과 달리 홍수 피해자들은 기후변화와의 상관성을 인식하는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친환경 행동에도 부분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Whitmarsh, 2020). 이상기후의 경험에 대해 M.Andrews(2020)는 단순히 이상기후로 인한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피해가 아닌 이로 인해 '개인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느낌(feeling)'을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반면 이러한 주관성을 보완하고자 GIS 등을 활용해 지리적으로 해안가에 위치하는 등 기후위험으로부터의 실제적 거리와 거주지역의 온도상승과 강수량 상승을 주요 독립변수로 분석한 연구들도 존재한다(Lujala et al, 2015, M.Frondel et al., 2017). 국내연구에서도 재난의 경험과 체감 정도를 기준으로 기후변화위험이 나에게 일어날 일로 인식하며 심리적 거리감을 가깝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한빛나라 외, 2020).

다음으로 감정적 요인은 최근의 위험지각 연구에서 위험지각 및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논의되고 있다(Finucane et al., 2000; Loewenstein et al., 2011). 감정(Affection) 변수는 사람이 무

엇인가에 대해 판단할 때 인지적인 반응보다는 정서적인 반응이 먼저 일어난다는 감정 휴리스틱(affect heuristic)을 기반으로 한다. 특정 위험에 대한 판단이 복잡한 경우에 사람들은 시간, 비용, 지능의 한계로 인해 감정적 요소에 따라 결정한다는 것이다(Slovic, Finucane, Peters&MacGregor, 2004). van der Linden(2015)의 연구에서 감정은 기후변화위험인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Leiserowitz(2006)에서는 기후변화인식뿐만 아니라 완화정책과 기후변화 과세정책에도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가치적 요인은 문화적 특성에 주목하는 문화이론(cultural theory of risk)과 위험구성주의(Risk-constructivism)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개인과 개인이 속한 사회의 가치지향에 따라 특정 위험에 대한 인식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대표적 예로는 생태주의, 물질주의, 이타주의 등을 들 수 있는데 Dietz et al.(2007)의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정책 지지에 물질주의가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한국민을 대상으로 한 김서용, 김선희(2014)의 연구에서 환경주의와 과학기술 낙관주의는 기후변화 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물질주의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 2) 기후변화정책 수용도에 관한 선행연구

기후변화정책 수용도에 연관된 선행연구로는 기후변화 대응행동의지(willingness to act)를 종속변수로 하는 연구 또한 포함하여 폭넓게 탐색하였다. 또한 정책종류에 상관없이 정책수용도 자체에 영향을 미

치는 변수들에 대한 선행연구도 살펴보았다.

먼저 Singh et al. (2017)은 기후변화에 대한 심리적 거리(발생가능성, 시간적, 사회적, 공간적)가 기후변화 적응정책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매개변수로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우려(기후변화 위험인식)를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심리적 거리(발생가능성, 시간, 사회, 공간)는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우려(기후변화 위험인식)를 매개로 기후변화 적응정책에 대한 지원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우려는 기후변화 적응정책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Hagen et al.(2016)은 유럽의 네 국가(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독일)를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일반적 기후변화 전략 선호, 기후변화 실현에 대한 믿음), 기후변화에 대한 개인의 지식, 기후변화 정보에 대한 신뢰, 기후변화 책임 주체에 대한 인식이 기후변화정책 지지(완화정책 지지, 적응정책 지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 네 국가 모두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와 기후변화영향에 대한 우려는 기후변화정책지지(완화정책지지, 적응정책지지)에 유의미한 양(+)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의 잠재적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적응 행동 촉진 요인을 연구한 고재경, 이우평(2016)의 연구에서도 기후변화 위험인식은 홍수 저감을 위한 지역 공동체 차원의 대응필요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특히 위험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의 적응행동 외에도 공동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개인이 기후변화 위험을 심각하다고 인식할 경우 개인적, 지역적, 국가적 수준에서 요구되는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 · 실천하고자 하며(이승한 · 윤순진, 2014),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

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Singh et al., 2017).

한편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높을수록 정책집행 시 사회구성원들의 지지와 동의를 얻어내기 용이하며(김화연 외, 2018),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을 경우 정부 정책의 위험성이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수하고자 하는 심리적 지지가 나타나게 된다(정원준, 2017). 또한 정부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을 경우 공동체가 기후변화위험에 대응하고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실행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Hagen et al., 2016; 고재경・이우평, 2016).

위와 같은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공중의 기후변화인식은 성별, 나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특성과 재난 피해경험의 유무, 정치적 이념, 가치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또한 이러한 기후변화 정책수용 혹은 대응행동 의지 또한 여러 사회경제적 특성, 경험 변수 등에 영향을 받으며 이 과정에서 기후변화 위험인식이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지닌다는 연구들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기후변화 경험 혹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홍수, 폭염, 지진 등 이상기후 현상에 국한된 경험, 다시 말해 재난경험(Disaster Experience)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기후위험(Climate Risk)은 단순히 이상기후현상만을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식량문제, 거주지 상실로 인한 이주문제 등 다양한 잠재된 하위 위험들을 포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으로 다루어져 왔던 이상기후현상(홍수, 폭염)과 신종 전염병(코로나19)의 경험과 인식이 기후변화위험인식과 기후변화정책 수용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국내 연구는 심층면접을 기반으로 하여 전문가-일반인 간의 인식 차이를 보거나 인식유형을 구분하는 연구가

주를 이뤘고 통계적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설명변수(인구통계학적 요인, 인지적 요인, 경험적 요인, 가치적 요인)를 포함하여 기후변화 위험인식과 기후변화정책 수용도의 영향요인과 결정구조를 통계모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 Ⅲ. 자료 및 연구 방법

앞서 살펴본 이론 및 선행연구를 통해 기후변화 위험인식과 기후변화대응정책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목적에 맞는 연구가설을 도출하고 이를 연구모형으로 나타내고자 한다.

## 1. 연구 가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위험인식과 기후변화정책 수용도의 영향요인을 크게 인구통계학적 요인, 인지적 요인, 경험적 요인, 가치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인구통계학적 요인으로는 성별, 학력, 나이, 소득, 정치이념을 선정하였다. 인지적 요인으로는 기후변화 실재 믿음, 기후변화가 상당 부분 인간 행위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책임귀인, 재난-기후변화 연관성

인식 정도를 채택하였다. 경험적 요인에서는 세 종류의 재난(홍수・호우/폭염/코로나19)에 대한 본인의 경험 여부와 감정 변수를 선택하였고 마지막 가치적 변수에는 물질주의를 포함했다. 한편, 정책 수용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정부신뢰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 정책수용도에 대한 분석에서는 상기한 변수들에 정부신뢰 변수를 추가하였다.

또한 앞서 설문조사 결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 대상이 되는 한국의 20-30대의 경우 기후변화의 체감 정도가 낮고 본인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아 기후변화위험인식이 다소 낮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여러 변수 중 세부 재난의 직접적인 경험과 이를 기후변화와 연관 짓는 인식수준이 두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인지적 요인은 기후변화 위험인식 수준과 기후변화정책 수용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기후변화가 실재한다는 믿음 정도가 높을수록 기후변화 위험인식 수준과 기후변화정책 수용도도 높을 것이다.

[가설 1-2] 기후변화가 인간행위로부터 비롯됐다고 여길수록 기후변화위험인식 수준과 기후변화정책 수용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 1-3] 재난과 기후변화 간 연관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기후변화위험인식 수준과 기후변화정책 수용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 1-4] ‘재난-기후변화 간 연관성 인식’ 변수의 영향력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2. 경험적 요인은 기후변화 위험인식 수준과 기후변화정책 수용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재난(홍수・호우/ 폭염/ 코로나19)의 경험은 기후변화 위험인식 수준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재난 경험' 변수의 영향력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2-3] 기후변화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클수록 기후변화 위험인식 수준과 기후변화정책 수용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 3. 인구통계학적 요인은 기후변화 위험인식 수준과 기후변화정책 수용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여성의 기후변화 위험인식 수준과 기후변화정책 수용도가 남성보다 더욱 높을 것이다.

[가설 3-2]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기후변화 위험인식 수준과 기후변화정책 수용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 3-3] 연령이 낮을수록 기후변화 위험인식 수준과 기후변화정책 수용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 3-4] 소득이 높을수록 기후변화 위험인식 수준과 기후변화정책 수용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 3-5] 정치성향이 진보인 경우 기후변화 위험인식 수준과 기후변화정책 수용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 4. 가치적 요인은 기후변화 위험인식 수준과 기후변화정책 수용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1] 물질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기후변화 위험인식 수준과 기후변화정책 수용도는 낮을 것이다.

가설 5. 정부신뢰 정도가 높을수록 기후변화정책 수용도가 높을 것이다.

## 2. 변수 정의 및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인식과 정책 수용도에 대한 이론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변수를 정의하고 측정도구를 구성하였다.

먼저 첫 번째 종속변수인 기후변화위험인식을 이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해 주관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개념화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기존 연구들을 참고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영향을 질문하였으며 위험특성에 따라 위험인식 수준을 측정하는 심리측정패러다임을 적용하여 총 11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두 번째 종속변수인 기후변화정책 수용도는 정책대상자가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목표달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정도로 개념화한다. 또한 기후변화정책은 다소 큰 범주이기에 보다 정확한 인식수준 도출을 위해 기후변화완화정책과 기후변화적응정책으로 각각 구분하여 측정한 후 이를 합성하였다. 정책수용도의 측정항목은 성욱준(2013), 박경순(2014), 이지윤(2018)등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부분 발췌한 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총 10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설명변수 각각의 정의와 설문지 구성은 아래 〈표 4〉와 같으며 측정도구는 Slovic(1987), Van der Linden(2015), Leiserwitz(2006), 박순애(2006), 이지윤&차용진(2018) 등 선행연구에서의 질문지를 활용하였다. 정부신뢰의 경우 재난 경험, 성별, 연령, 학력, 정치성향을 제외한 모든 변수는 리커트 7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정치성향의 경우 5점 척도로 데이터 수집 이후에 보수-중도-진보로 변환하였다.

〈표 4〉 설문지 구성

| 변수 | | 내용 |
|---|---|---|
| 기후변화 위험인식 | | (1) 위험특성<br>통제 가능성, 노출의 자발성, 과학적 지식, 친숙성, 다음 세대에의 영향<br>(2) 개인적/사회적 위험인식<br>기후변화 인식, 두려움, 개인 삶에 미치는 영향,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국가에 미치는 영향,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 |
| 기후변화정책 수용도 | | (1) 정책에 대한 인지, (2) 정책 필요성에 대한 동의, (3) 정책 유용성에 대한 인식, (4) 정책협조,<br>(5) 정책으로 인한 불이익 수용 |
| 인지적 요인 | 기후변화 실재 믿음 | 기후변화(지구온난화)가 실재, 진행된다는 믿음 |
| | 책임 귀인 | 기후변화가 대부분 인간 행위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인식하는 정도 |
| | 연관성 인식 | 기후변화- 자연재난 간 연관성을 인식하는 정도<br>(홍수·호우, 폭염, 코로나 각각) |
| 경험적 요인 | 재난 경험 | 재난으로 인한 본인의 금전적, 신체적 피해 여부<br>(홍수·호우, 폭염, 코로나 각각) |
| | 감정 | (1) 기후변화에 대한 긍정-부정 정도<br>(2) 기후변화에 대한 호-불호 정도<br>(3) 기후변화에 대한 슬픔 정도 |
| 가치적 요인 | 물질주의 | 경제발전 중요도 인식 정도<br>경제발전-환경보호 간 우선순위 인식 정도 |
| 인구통계학적 요인 | | 성별, 연령, 학력, 소득, 정치성향 |
| 정부신뢰 | | (1) 일반적 신뢰<br>(2) 능력 신뢰 (전문성, 대응성)<br>(3) 윤리성 신뢰 (공정성, 투명성) |

##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1) 조사표본 및 자료수집

이 연구는 연구모형과 가설검증을 위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20-30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연구대상자를 만 19세 이상 20대와 30대로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연구의 설문조사는 기후변화 위험인식, 기후변화 대응정책 수용도, 코로나19, 홍수, 폭염의 경험 및 위험인식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의견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있다. 설문지에 다소 어려울 수 있거나 혼동할 수 있는 개념을 1차적으로 사전설문작업을 통해 수정, 개념을 설문 안에 명시하여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만 19세 미만의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청년층이 향후 기후위기 시대의 당사자성이 높음에도 기후변화 체감 정도와 심각성 인식의 정도가 낮은 반면 정부 차원의 기후변화대응에 있어 청년위원회 설치 등 청년참여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20-30대로 한정하였다.

모집단 특성을 반영하기에 비교적 용이한 할당표집(Quota Sampling)을 통해 서울의 5개 생활권역의 인구수[3]에 비례하게 각 권역의 표본 수를 할당했으며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을 활용하였다. 설문 응답자는 서울시 자치구 별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와 서울 소재 대학교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모집하였다. 온라인 조사의 경우 조

3) 서울시는 「2030 서울생활권 계획」에 따라 5개의 광역 생활권(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으로 구분된다. 각 생활권역별 인구비례는 「2020년 1/4분기 서울특별시 주민등록인구통계」의 자치구별 인구 구성비를 활용해 산정하였다.

사 참여자가 자발적 의지 또는 희망에 의해 스스로 설문에 참여하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 집단일 가능성이 높아 자발적 표본(voluntary sample)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환경이슈에 대한 관심도가 기본적으로 높은 집단의 참여확률이 높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도가 낮은 사람들의 설문참여 유도와 설문 응답률 제고를 위해 응답자에게 소정의 보상을 제공하는 경제적 참여유인이 활용되었다.

표본 수 선정은 선행연구 검토 및 통계분석방법에 따른 적정 표본 수를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기후변화인식과 정책 지지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변지은(2014)의 연구에서는 서울, 인천, 경기도 세 곳의 시도에 거주하는 5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지윤(2018)의 연구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 거주 50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오도교(2010)는 대전광역시 시민 241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인식과 산림정책 지지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 정숙임(2016) 또한 수도권, 충청지역 대학생 320명을 연구표본 수로 활용하였다. 선행연구를 종합해보았을 때 단일 시·도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한 경우 약 100-300명 정도의 표본 수를 책정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조사는 2020년 11월 4일부터 2020년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총 10일간 진행되어 총 174명이 응답하였으며 이 가운데 불성실 응답자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172부를 유효표본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 2)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데이터 코딩 후 SPSS 27.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절차와 자료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표본특성 파악을 위해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 다음으로 측정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실시하여 각 변수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로는 설문 시 사용한 측정도구의 타당성, 신뢰성을 검토하였다. 초기 연구 설계와 요인구분이 다르게 나타난 경우에는 재검토 후 제외함으로써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높였다. 신뢰도 검정을 위해서 내적일관성 분석(internal consistency)을 시행,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값이 보다 엄밀한 기준인 0.7(good and acceptable) 이상인 경우에 동일 요인으로 포함하였다.

세 번째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최종학력, 월 소득, 정치성향에 따른 기후변화위험인식과 정책수용도의 차이분석을 위해 독립표본 t-test와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수행하였다.

마지막 모형 분석에서 먼저 1) 기후변화위험인식의 결정요인을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유의한 변수들과 각 모형별 설명력을 분석하였으며 이후 3가지의 세부 재난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재난 종류에 따른 변화를 살펴봤다. 이후 2) 기후변화정책 수용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유의한 변수들을 살펴봤으며 마지막으로는 기후변화위험인식과 기후변화정책 수용도 각각의 결정구조를 비교분석하였다.

# Ⅳ. 분석 결과

## 1. 표본특성

###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된 응답자 172명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성, 연령, 월 소득, 최종학력, 거주 자치구, 정치성향별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아래의 〈표 5〉와 같다.

〈표 5〉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N= 172)

| 구분 | | 명 | 비율(%) |
|---|---|---|---|
| 성별 | 남성 | 70 | 40.7 |
| | 여성 | 102 | 59.3 |
| 연령 | 20대 | 105 | 61.0 |
| | 30대 | 67 | 39.0 |
| 월 소득 | 200만 원 미만 | 94 | 54.7 |
| |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 41 | 23.8 |
| | 300만 원 이상 | 37 | 21.5 |
| 최종학력 | 고등학교 졸업 | 36 | 20.9 |
| | 대학교 졸업 | 86 | 50.0 |
| | 대학원 재학 이상 | 50 | 29.1 |
| 거주 자치구 | 도심권 | 10 | 5.8 |
| | 동남권 | 37 | 21.5 |
| | 동북권 | 49 | 28.5 |
| | 서남권 | 56 | 32.6 |
| | 서북권 | 20 | 11.6 |
| 정치성향 | 보수 | 24 | 14.0 |
| | 중도 | 81 | 47.1 |
| | 진보 | 67 | 38.9 |

성별에 따른 분포는 남성은 70명(40.7%), 여성은 102명(59.3%)이다. 연령별 분포는 20대 105명(51.9%), 30대 67명(33.2%)이며 소득으로 구분해 볼 때 200만 원 미만은 94명(54.7%),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은 41명(23.8%), 300만 원 이상은 37명(21.5%)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득분포는 미취업 상태이거나 사회초년생으로 소득 수준이 비교적 낮은 20-30대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설문조사가 2,30대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이러한 젊은 층의 소득 경향을 반영해서 소득의 범주를 300만 원 이상까지만 두었다. 최종학력에 따른 분포는 고등학교 졸업 및 그 이하가 36명(20.9%), 대학교 졸업은 86명(50%), 대학원 재학 및 졸업(석사) 이상은 50명(29.1%)으로 대학교 졸업자가 가장 많았다. 거주지역은 서울시 도심권 계획에 따른 분류별 인구비례를 따랐으며 도심권은 10명(5.8%), 동남권은 37명(21.5%), 동북권은 49명(28.5%), 서남권은 56명(32.6%), 서북권은 20명(11.6%)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치성향별 분포를 살펴보면 보수성향은 24명(14.0%), 중도성향은 81명(47.1%), 진보성향은 67명(38.9%)으로 나타났다.

### 2) 기술통계분석

연구모형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의 일반적인 경향과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변수의 기술통계량(평균, 표준편차)를 검토하였다. 경험여부를 유(1), 무(0)로 묻는 재난 경험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는 리커트 7점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기술통계량 검토결과는 〈표 6〉과 같다. 종속변수인 기후변화위험

인식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5.67로 나타나며 구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사회적 위험인식이 6.29로 개인적 위험인식 5.67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후변화에 대한 개인적 위험은 사회적 위험보다 낮게 판단된다는 Leiserowitz. Maibach, 2010의 연구와 부합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기후변화위험인식에 대한 여러 측정 문항 중에서는 미래 세대에 미치는 영향이 제일 클 것이라는 문항이 6.6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기후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6.10)보다는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6.37)이 더 크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기후변화정책 수용도의 평균값(5.09)은 기후변화 위험인식(5.67) 보다는 낮게 나타났으며 기후변화완화정책(5.10), 기후변화적응정책(5.07)으로 완화정책의 수용도가 비교적 높았지만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세부 문항을 살펴보면 두 정책 모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 정도는 높았지만 각 정책의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정책인지' 점수가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적응정책의 '정책인지'(3.66)는 문항 중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 설명변수 중 인지적 요인을 살펴보면 기후변화 실재믿음의 평균값은 6.42로 보통수준보다 상당히 높았으며 기후변화가 대부분 인간행위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책임귀인 또한 6.01로 높게 나타났다.

재난과 기후변화 간 상관성 인식은 5.38로 나타났으며 세부 재난별로는 폭염과 기후변화의 상관성(6.25)을 가장 크게 인식, 홍수・호우와의 상관성(6.09), 전염병과의 상관성(4.33)이 그 뒤를 따랐다. 현재의 코로나바이러스와 기후변화의 상관성 인식(3.65)은 평균 정도로 나타났으며 일반적인 전염병과 기후변화 간 상관성(4.68)은 더 높게 나타났다.

경험적 요인 중 재난 경험의 평균은 홍수・호우, 폭염, 코로나 경험

이 각각 0.05, 0.08, 0.14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적 인식의 평균(5.53)은 매우 부정적이다(7점)라는 인식에 다소 가깝게 나타났으며 슬픔・우울인식은 4.86로 부정, 불호 인식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가치적 요인인 물질주의 평균값(3.08)은 물질적 가치를 가장 중시하는 7점의 절반 보다 낮게 나타나 환경적 가치보다 물질적 가치를 무조건 우선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부신뢰는 4.39로 보통수준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적 신뢰, 능력 신뢰, 윤리성 신뢰 수준에 있어서는 평균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윤리성 신뢰, 특히 정부가 발표하는 정보와 통계자료를 신뢰할 수 있다는 투명성에 대한 신뢰도가 4.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6〉 기술 통계량

| 변수 | | | 측정 문항 | 평균 | Std.D | 비고 |
|---|---|---|---|---|---|---|
| 종속변수 | **기후변화 위험인식 (5.49)** | **개인적 위험인식 (5.67)** | 일반적 인식 | 5.09 | 1.29 | |
| | | | 개인 삶에 미치는 영향 | 6.13 | 1.11 | |
| | | | 위험에 대한 두려움 | 5.79 | 1.27 | |
| | | **위험특성 (4.50)** | 노출의 자발성 | 5.09 | 1.74 | |
| | | | 통제 가능성 | 3.67 | 1.55 | 역코딩 |
| | | | 과학적 지식 | 3.83 | 1.43 | 역코딩 |
| | | | 친숙성 | 3.29 | 1.61 | |
| | | | 미래 세대의 영향 | 6.60 | 0.84 | |
| | | **사회적 위험인식 (6.29)** | 자연생태계 영향 | 6.40 | 0.98 | |
| | | | 전 세계 영향 | 6.37 | 0.99 | |
| | | | 우리나라 영향 | 6.10 | 1.15 | |
| | **기후변화 정책 수용도 (5.09)** | **기후변화 완화정책 (5.10)** | 정책인지 | 3.89 | 1.69 | |
| | | | 필요성 동의 | 5.91 | 1.15 | |
| | | | 유용성 인식 | 4.81 | 1.44 | |
| | | | 정책협조 | 5.74 | 1.16 | |
| | | | 불이익 수용 | 5.17 | 1.40 | |
| | | **기후변화 적응정책 (5.07)** | 정책인지 | 3.66 | 1.63 | |
| | | | 필요성 동의 | 5.79 | 1.16 | |
| | | | 유용성 인식 | 5.03 | 1.28 | |
| | | | 정책협조 | 5.68 | 1.16 | |
| | | | 불이익 수용 | 5.17 | 1.47 | |
| 설명변수 | **인지적 요인** | **기후변화 실재 (6.42)** | 기후변화 실재에 대한 믿음 | 6.42 | 0.93 | |
| | | **책임 귀인 (6.01)** | 기후변화 인간으로부터 기인 | 6.01 | 1.16 | |
| | | **재난-기후변화 상관성 인식 (5.38)** | 홍수·호우-기후변화 상관성 | 6.02 | 1.19 | |
| | | | 기후변화 지속 시 홍수·호우 발생 가능성 | 6.15 | 1.08 | |

| | | | | | | |
|---|---|---|---|---|---|---|
| | | | 폭염-기후변화 상관성 | 6.22 | 0.97 | |
| | | | 기후변화 지속 시 폭염 발생 가능성 | 6.28 | 1.01 | |
| | | | 코로나-기후변화 상관성 | 3.65 | 1.79 | |
| | | | 전염병-기후변화 상관성 | 4.67 | 1.58 | |
| | | | 기후변화 지속 시 전염병 발생 가능성 | 4.68 | 1.70 | |
| | **경험적 요인** | **재난 경험 (0.09)** | 홍수·호우 피해 경험 | 0.05 | 0.22 | |
| | | | 폭염 피해 경험 | 0.08 | 0.27 | |
| | | | 코로나 확진 및 진단 경험 | 0.14 | 0.35 | |
| | | **감정 (5.53)** | 긍정-부정 인식 | 5.82 | 1.00 | |
| | | | 호-불호 인식 | 5.91 | 1.02 | |
| | | | 슬픔·우울 인식 | 4.86 | 1.57 | |
| | **가치적 요인** | **물질주의 (3.08)** | 경제발전 중시 | 3.03 | 1.53 | |
| | | | 경제발전 우선시 | 3.13 | 1.66 | |
| | **정부 신뢰 (4.39)** | **일반적 신뢰 (4.37)** | 일반적 신뢰 | 4.37 | 1.64 | |
| | | **능력 신뢰 (4.36)** | 전문성 | 4.44 | 1.57 | |
| | | | 대응성 | 4.28 | 1.62 | |
| | | **윤리성 신뢰(4.45)** | 공정성 | 4.38 | 1.72 | |
| | | | 투명성 | 4.52 | 1.70 | |

## 2. 측정도구의 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설문문항)가 얼마나 일관성 있게 측정되었는지를 검증하고자 알파계수법에 의한 크론바흐 알파 계수법을 활용하였다. 통상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값이 0.6(acceptable) 이상이면 요인을 구성하는 측정문항의 일관성이 높다고 판단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Konting et al(2009)의 기준에 따라 0.7 이상(good and acceptable)을 적용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 결과는 〈표 7〉과 같다. 기후변화정책 수용도, 홍수・호우- 기후변화 인식, 폭염-기후변화 인식, 전염병- 기후변화 인식, 물질주의, 정부신뢰에서 신뢰도 계수는 최소 0.770, 최대 0.913으로 측정문항의 일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원래 1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던 기후변화 위험인식의 신뢰도는 0.518로 낮게 나타나 일부 문항의 삭제 여부 검토를 위해 11개 측정항목을 대상으로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최대우도법 직접 오블리민 방식으로 시행한 결과 ‘친숙성’, ‘노출의 자발성’,‘과학적 지식’항목의 공통성이 각각 0.073, 0.205, 0.233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요인적재치 또한 0.5미만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래서 세 문항을 제거하였고 기후변화 위험인식의 최종적인 신뢰도 계수는 0.784로 도출되어 문항의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변수의 경우 신뢰도가 다른 측정도구들에 비해 다소 낮은 0.639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며, 해당 변수의 문항 수가 적어 문항을 삭제할 경우 변수의 의미를 다소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항목 제거 없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 7〉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 결과

| 변수 | 문항 수 | 제거 문항 | 신뢰도 계수 |
|---|---|---|---|
| 기후변화 위험인식 | 8 | 친숙성, 노출의 자발성, 과학적 지식 | .784 |
| 기후변화정책 수용도 | 5 | - | .770 |
| 홍수·호우- 기후변화 인식 | 2 | - | .803 |
| 폭염-기후변화 인식 | 2 | - | .913 |
| 전염병- 기후변화 인식 | 3 | - | .890 |
| 감정 | 3 | - | .639 |
| 물질주의 | 2 | - | .868 |
| 정부신뢰 | 5 | - | .906 |

## 3. 가설 검증

### 1) 집단 간 인식 차이 분석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학력, 월 소득, 연령, 정치성향)에 따른 기후변화 위험인식과 기후변화정책 수용도의 차이분석을 위해 독립 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서로 다른 두 집단 간 평균 차이를 검정하는 t-test의 경우 성별, 연령, 학력, 월 소득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보고자 활용하였고 세 집단 이상인 정치성향의 경우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이 중 정치성향에서 ‘보수’ 집단의 표본 수가 24명으로 중심극

한정리를 만족하지 못해 정규성 검정을 시행하였으며 Kolmogorov-Smirnov의 유의확률이 0.05 이상으로 나타나 정규성 만족을 확인하였다. 일원배치 분산분석에서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경우 사후검증 방법은 Scheffe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먼저 집단 간 기후변화 위험인식의 차이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8〉, 〈표 9〉와 같다. 그 결과 성별, 학력에 따른 기후변화위험인식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여성의 기후변화위험인식 평균값은 5.98로 5.46인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학교를 졸업한 집단이 5.83점으로 그렇지 않은 집단(5.52)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기후변화 위험인식을 보였다. 연령, 소득, 정치성향에 따른 기후변화위험인식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8〉 인구통계 구분에 따른 **기후변화위험인식** 차이 분석

| 구 분 | | 기후변화 위험인식 | | | t(p) |
|---|---|---|---|---|---|
| | | N | 평균(M) | SD | |
| 성별 | 여성 | 102 | 5.98 | 0.55 | 4.549*** |
| | 남성 | 70 | 5.46 | 0.85 | |
| 연령 | 20대 | 105 | 5.75 | 0.69 | -0.369 |
| | 30대 | 67 | 5.79 | 0.80 | |
| 학력 | 고등학교 이하 | 36 | 5.52 | 0.71 | 2.28* |
| | 대학교 졸업 | 136 | 5.83 | 0.73 | |
| 월 소득 | 200만원 미만 | 94 | 5.75 | 0.66 | 0.318 |
| | 200만원 이상 | 78 | 5.79 | 0.82 | |

*p<.05, **p<.01, ***p<.001

〈표 9〉 정치성향에 따른 **기후변화위험인식** 차이 분석

| 구분 | | 기후변화위험인식 | | | F | p | scheffe |
|---|---|---|---|---|---|---|---|
| | | n | 평균 | SD | | | |
| 정치성향 | 보수 (a) | 24 | 5.58 | 0.73 | 1.565 | 0.212 | n/a |
| | 중도 (b) | 81 | 5.74 | 0.80 | | | |
| | 진보 (c) | 67 | 5.87 | 0.64 | | | |

$^{*}p<.05$, $^{**}p<.01$, $^{***}p<.001$

한편 기후변화정책 수용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변수는 성별, 학력, 정치성향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위험인식에서의 결과와 같이 여성이 정책수용도 평균값 5.23를 보이면서 4.87의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교를 졸업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높은 기후변화정책 수용도를 보였다. 학력 간 평균 차이는 기후변화위험인식보다 정책 수용도에서 보다 큰 간극으로 벌어졌다. 소득, 연령에 따른 평균 차이는 인식에서와 마찬가지로 발견되지 못한 반면 정책 수용도에서는 정치성향에 따른 평균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 분석방법인 scheffe test 결과 보수-진보 간 기후변화정책 수용도 평균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진보성향 응답자의 정책수용도가 5.32로 보수성향 응답자(4.76)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이 두 집단 간 정책 수용도의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던 성별, 학력 간 그룹 차이에 비해 더욱 크게 나타났다.

〈표 10〉 인구통계 구분에 따른 **기후변화정책 수용도** 차이 분석

| 구 분 | | 기후변화정책 수용도 | | | t(p) |
|---|---|---|---|---|---|
| | | N | 평균(M) | SD | |
| 성별 | 여성 | 114 | 5.23 | 0.83 | 2.515* |
| | 남성 | 88 | 4.87 | 1.06 | |
| 연령 | 20대 | 105 | 5.11 | 0.88 | 0.359 |
| | 30대 | 67 | 5.05 | 1.03 | |
| 학력 | 고등학교 이하 | 36 | 4.79 | 1.02 | 2.11* |
| | 대학교 졸업 | 136 | 5.16 | 0.91 | |
| 월 소득 | 200만원 미만 | 94 | 5.15 | 0.88 | -1.043 |
| | 200만원 이상 | 78 | 5.00 | 1.00 | |

*p<.05, **p<.01, ***p<.001

〈표 11〉정치성향에 따른 **기후변화정책 수용도** 차이 분석

| 구분 | | 기후변화정책 수용도 | | | | | |
|---|---|---|---|---|---|---|---|
| | | n | 평균 | SD | F | p | scheffe |
| 정치성향 | 보수 (a) | 24 | 4.76 | 0.78 | 4.19 | <0.017* | a<c |
| | 중도 (b) | 81 | 4.99 | 1.07 | | | |
| | 진보 (c) | 67 | 5.32 | 0.77 | | | |

*p<.05, **p<.01, ***p<.001

### 2) 상관관계 분석

다음으로 기후변화위험인식, 기후변화정책 수용도와 설명변수 간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2〉 와 같다.

먼저 종속변수인 기후변화위험인식과 기후변화정책수용도 간 상관관계 계수값은 0.541로 비교적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른 설명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기후변화위험인식은 인지적 요인에 해당하는 기후변화 실재믿음, 책임 귀인, 기후변화-재난 연관성 인식과, 경험적 요인 중 감정변수와 강한 정(+)의 관계를 가지는 반면 물질주의와는 부(-)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기후변화 정책수용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지적 요인 중 기후변화 실재믿음, 책임 귀인, 기후변화-재난 연관성 인식, 경험적 요인 중 감정과 정(+)의 관계, 가치적 요인인 물질주의와 부(-)의 상관성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신뢰와는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완화정책과 적응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완화정책보다는 적응정책이 기후변화 위험인식과 상관성이 좀 더 높았다. 특히 물질주의와 완화정책수용도의 상관성(-0.338)로 적응정책수용도(-.301) 보다 높아 탄소배출 저감과 관련되어있는 완화정책이 산업, 경제성장에 대한 인식(물질주의)와 연관성이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후변화위험인식과 기후변화정책 수용도의 상관관계 구조를 비교해보면 두 변수 모두 기후변화실재믿음, 책임귀인, 기후변화-재난 연관성 인식, 감정, 물질주의 등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재난경험과는 유의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한편 차이점도 존재하는데 관계 강도 측면에서 기후변화위험인식은 기후변화 실재믿음과 0.772의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한편 정책수용도는 기후변화-재난 연관성 인식과 0.568의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정책 수용도 간에도 차이가 발견되는데 완화정책은 상대적으로 기후변화실재믿음, 재난-기후변화 연관성 인식, 물질주의와의 상관성이 높은 반면 적응정책은 위험인식, 책임귀인, 감정, 정부신뢰와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기후변화위험인식과 기후변화정책 수용도 간 영향요인 구조에 일부 유사한 속성들이 있지만 각각 변수 간의 관계구조가 다를 수 있고 정책의 종류(완화/적응)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12〉 상관관계 분석

| | 1 | 2 | 2.1 | 2.2 | 3 | 4 | 5 | 6 | 7 | 8 | 9 |
|---|---|---|---|---|---|---|---|---|---|---|---|
| 1. 기후변화 위험인식 | 1 | .541** | .505** | .529** | .772** | .581** | .681** | 0.030 | .500** | -.423** | .163* |
| 2. 기후변화 정책수용도 | .541** | 1 | .955** | .955** | .498** | .466** | .568** | 0.035 | .454** | -.334** | .375** |
| 2.1. 완화정책수용도 | .505** | .955** | 1 | .824** | .482** | .441** | .545** | 0.041 | .426** | -.338** | .329** |
| 2.2. 적응정책수용도 | .529** | .955** | .824** | 1 | .470** | .449** | .539** | 0.025 | .441** | -.301** | .387** |
| 3. 기후변화 실재믿음 | .772** | .498** | .482** | .470** | 1 | .596** | .569** | 0.085 | .483** | -.357** | 0.146 |
| 4. 책임귀인 | .581** | .466** | .441** | .449** | .596** | 1 | .561** | 0.044 | .431** | -.332** | .150* |
| 5. 연관성 인식 | .681** | .568** | .545** | .539** | .569** | .561** | 1 | 0.096 | .506** | -.386** | 0.115 |
| 6. 재난 경험 | 0.030 | 0.035 | 0.041 | 0.025 | 0.085 | 0.044 | 0.096 | 1 | 0.127 | -0.001 | -0.129 |
| 7. 감정 | .500** | .454** | .426** | .441** | .483** | .431** | .506** | 0.127 | 1 | -.342** | 0.009 |
| 8. 물질주의 | -.423** | -.334** | -.338** | -.301** | -.357** | -.332** | -.386** | -0.001 | -.342** | 1 | -.157* |
| 9. 정부신뢰 | | .375** | .329** | .387** | 0.146 | .150* | 0.115 | -0.129 | 0.009 | -.157* | 1 |

*p<.05, **p<.01, ***p<.001

### 3) 기후변화 위험인식 모형

다음으로 기후변화 위험인식과 기후변화정책 수용도를 결정하는 인과구조를 살펴보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기후변화 위험인식을 종속변수로 하여 각 설명변수의 요인별(인지요인, 경험요인, 가치요인, 인구통계학적 요인) 설명력을 비교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3〉과 같다. 재난 경험과 연관성 인식에 있어 홍수·호우, 폭염, 코로나의 경험을 통합한 모형으로 회귀분석을 먼저 진행한 후 각각의 재난별로 나눠 분석하였다. 연령의 경우 자연로그를 취했으며 성별, 학력, 소득, 정치성향은 더미로 처리하였다. 준거집단은 각각 남성, 대학교 졸업 미만, 월 200만 원 미만, 중도 성향이다.

모형 해석에 앞서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검토한 결과 독립변수 간 VIF 지수는 1.056~1.977로 10 미만으로 나타나고 공차한계 또한 모두 0.1 이상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오차의 독립성 검정 결정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이 2.093으로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 1은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이 기후변화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주는데 F= 5.369($p<0.001$)로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 13.3%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세부 변수별로 살펴보면 성별(여성)이 기후변화위험인식에 유의미한 변수로, 학력, 연령, 소득, 정치성향을 유의미하지 않은 변수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여성의 기후변화 위험인식이 보다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모형 2는 인구통계학적 요인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인지적

요인이 기후변화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F=42.893(p<0.001)로 적합한 회귀모형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설명력은 68.8%로 이는 모형 1보다 유의한 수준에서 55.5% 증가한 값이다. 인지적 요인 중 기후변화가 실재하며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신뢰정도와 기후변화와 세부 재난 간 연관성 인식이 기후변화위험인식에 강한 정(+)의 영향을 미치며 대학교 졸업 여부 또한 약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가 인간행위에 의해 발생했다는 책임귀인은 유의미하지 않은 변수로 나타났다.

모형 3은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인지적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경험적 요인이 기후변화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했다. 모형 3의 F값은 35.401(p<0.001)로 적합한 회귀모형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1% 증가했지만 이는 유의하지 않은 증가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재난(홍수・호우, 폭염, 코로나)의 경험과 기후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감정은 개인의 기후변화위험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모형 4는 가치적 요인의 추가적인 설명력을 보고자 시행되었다. F=33.380(p<0.001)의 모형 적합성을 보이며 종속변수에 대한 69.4%의 설명력을 보임으로써 설명력이 유의한 수준에서 5% 증가하였다. 가치변수인 물질주의는 기후변화위험인식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회귀모형 결과를 보면 기후변화 실재 믿음, 재난-기후변화 연관성 인식, 물질주의가 기후변화위험인식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표준화된 회귀계수 값($\beta$)을 통해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해보면 기후변화 실재믿음($\beta$=0.512) > 재난-기후변화 연관성 인식($\beta$=0.308) > 물질주의($\beta$=-0.098)로 나타난다. 요인별로는 Model 1 →Model 2 과정

에서 인지적 요인의 설명력 증가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경험적 요인에 속한 변수는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표 13〉 **기후변화위험인식**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 | 인구통계학적 요인 | 인지적 요인 | 경험적 요인 | 가치적 요인 |
|---|---|---|---|---|
| | Model 1(β) | Model 2(β) | Model 3(β) | Model 4(β) |
| 성별 | 0.372*** | 0.050 | 0.041 | 0.036 |
| 학력 | 0.127 | 0.112* | 0.110* | 0.099 |
| 연령 | -0.029 | -0.037 | -0.033 | -0.020 |
| 소득 | 0.073 | 0.025 | 0.023 | 0.027 |
| 보수 성향 | -0.008 | 0.048 | 0.046 | 0.060 |
| 진보 성향 | 0.075 | -0.042 | -0.046 | -0.059 |
| 기후변화 실재 | - | 0.528*** | 0.517*** | 0.504*** |
| 책임귀인 | - | 0.072 | 0.063 | 0.059 |
| 연관성 인식 | - | 0.335*** | 0.322*** | 0.308*** |
| 재난 경험 | - | - | -0.047 | -0.043 |
| 감정 | - | - | 0.063 | 0.051 |
| 물질주의 | - | - | - | -0.098*** |
| F값 | 5.369*** | 42.893*** | 35.401*** | 33.380*** |
| $R^2$ | .163 | .704 | .709 | .716 |
| Adjusted $R^2$ | .133 | .688 | .689 | .694 |

*p<.05, **p<.01, ***p<.001

reference group : 남성(성별), 대학교 졸업 미만(학력), 월 200만원 미만(소득), 중도(정치성향)

다음으로는 통합 모형을 홍수·호우, 폭염, 코로나라는 세부 재난으로 구분해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여 각각의 변수가 갖는 영향력을 비교하였으며 결과는 아래 〈표 14〉와 같다.

〈표 14〉**기후변화위험인식**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재난별)**

| 변수 | Model 1. 홍수 | | | Model 2. 폭염 | | | Model 3. 코로나 | | |
|---|---|---|---|---|---|---|---|---|---|
| | B | SE | β | B | SE | β | B | SE | β |
| (상수) | 0.641 | 0.917 | | 0.195 | 0.962 | | 1.479 | 0.965 | |
| 성별 | 0.073 | 0.078 | 0.049 | 0.037 | 0.080 | 0.025 | 0.075 | 0.081 | 0.050 |
| 학력 | 0.147 | 0.096 | 0.082 | 0.191 | 0.099 | 0.106 | 0.177 | 0.101 | 0.099 |
| 연령 | 0.087 | 0.070 | 0.059 | 0.057 | 0.071 | 0.039 | 0.025 | 0.073 | 0.017 |
| 소득 | 0.241 | 0.262 | 0.054 | 0.338 | 0.270 | 0.076 | 0.090 | 0.278 | 0.020 |
| 보수 | 0.141 | 0.100 | 0.067 | 0.119 | 0.102 | 0.057 | 0.117 | 0.104 | 0.056 |
| 진보 | -0.062 | 0.071 | -0.042 | -0.052 | 0.073 | -0.035 | -0.090 | 0.075 | -0.060 |
| 기후변화 실재 | 0.394*** | 0.048 | 0.496 | 0.415*** | 0.049 | 0.523 | 0.451*** | 0.049 | 0.567 |
| 책임 귀인 | 0.064 | 0.036 | 0.101 | 0.047 | 0.038 | 0.075 | 0.067 | 0.038 | 0.106 |
| 연관성 인식 | 0.189*** | 0.038 | 0.267 | 0.181*** | 0.047 | 0.234 | 0.073** | 0.025 | 0.152 |
| 재난 경험 | 0.039 | 0.145 | 0.012 | -0.096 | 0.121 | -0.036 | -4.913E-07 | 0.096 | 0.000 |
| 감정 | 0.042 | 0.042 | 0.054 | 0.061 | 0.043 | 0.078 | 0.069 | 0.044 | 0.088 |
| 물질주의 | -0.057* | 0.025 | -0.115 | -0.054* | 0.026 | -0.109 | -0.059* | 0.026 | -0.119 |
| F값 | 32.234** | | | 30.044*** | | | 28.361*** | | |
| $R^2$ | 0.709 | | | 0.694 | | | 0.682 | | |
| Adj. $R^2$ | 0.687 | | | 0.671 | | | 0.658 | | |

*p<.05, **p<.01, ***p<.001

세부 재난별 모형을 구분해도 통합 모형과 동일한 변수(기후변화 실재 믿음, 재난-기후변화 연관성 인식, 물질주의)들이 기후변화위험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익숙하게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받아들여지고 관련 선행연구에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던 홍수·호우, 폭염의 경험은 코로나 경험과 마찬가지로 기후변화 위험인식에 유의하지 않은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난-기후변화 연관성은 재난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두 기후변화위험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재난 간 비교 시 홍수-기후변화 연관성 인식의 영향력이 가장 크고 코로나-기후변화 간 연관성 인식의 영향력이 가장 작았다. 기후변화위험인식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 결과를 논의해보면 먼저 인구통계학적 변수에서 유의미한 변수가 발견되지 않았다. 인구통계학적 변수만 포함된 Model 1에서는 여성더미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지만 최종 모형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정치성향과 소득, 연령도 가설과는 다르게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지윤·차용진(2019), 김서용·김선희(2016)의 연구에서도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이 유의미하지 않았고 van der Linden(2015)과 K.Akerlof(2013)의 연구에서는 유의하지만 기후변화위험인식에 대한 설명력이 매우 작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아주 반대되는 결과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경우 청년층이라는 동질적인 특징을 지닌 20-30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기에 학력, 연령, 소득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 그러나 선행연구에 따르면 인구통계학 변수 중 정치성향(political ideology)이 가장 일관적인 결과(진보가 보수보다 기후변화 인식이 높고 이에 대한 두려움을 자주 표현한다)를 보인다는 점에서 해석이 필요하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첫 번째로 기후변화 이슈가 지나치게 정치화되고 기후변화 회의론(climate change

skepticism) 세력이 큰 미국과 달리 한국의 경우 기후변화 문제해결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사회적, 정치적으로 합의되어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정치성향이 유의하게 나타났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미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으며 동일한 CCRPM(Climate Change Risk Perception Model)을 호주에 적용한 B.Xie et al(2019)에서 정치성향은 기후변화인식과 대응행동의지에 유의미하지 않은 변수로 나타났다. 두 번째는 기후변화이슈가 정치적으로 합의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非)정치화 되어 주요한 정치의제 중 하나로 시민들에게 인식되지 못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기후변화위험 자체에 대한 옳고 그름, 영향력에 대한 논의나 판단이 사회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다.

다음으로 인지적 변수에서 기후변화 실재 믿음과 재난-기후변화 연관성 인식이 높은 정(+)의 영향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기후변화원인에 대한 지식이 부재한 사람의 정책지지가 낮다는 O ‘Connor et al., (2002)의 연구와 기후변화에 대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지식이 기후변화 우려와 정(+)의 관계를 가진다는 Tobler et al.(2012)의 연구결과에 부합한다. 반면 기후변화가 인간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책임귀인은 유의하지 않은 변수로 나타났다. ‘재난-기후변화 연관성’을 결과에 대한 지식의 일종으로 생각해보면 기후변화의 원인에 대한 지식(cause-knowledge)보다는 결과에 대한 지식(impact-knowledge)이 기후변화위험인식을 높이는데 보다 효과적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경험적 변수에서는 재난의 직접경험(direct experience)와 감정(Affection) 모두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홍수・호우, 폭염으로 구체화 된 기후변화 위험을 체감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심리적 거

리감이 감소하여 기후변화 위험인식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정과 반대되는 결과였다. 또한 본인의 일상생활 혹은 주변인들이 기후변화 영향을 체감했을 경우 위험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이승준, 김영욱(2019)의 연구결과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왜 재난의 직접 경험이 유의하지 않을까? 첫 번째로 대부분의 연구에서 이상기후현상의경험 유무 혹은 폭염/폭우로부터 영향을받았다고 느끼는 정도(feeling of affected)를 설정한 것과 달리 이 연구에서는 홍수・호우, 폭염, 코로나로 인한 신체적, 물질적 피해 경험(experience of damage)을 질문함으로써 경험의 폭이 굉장히 좁게 설정됐다는 연구 설계상의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두 번째로는 이 연구의 연구대상자들이 도시 인프라가 잘 구축된 대도시 서울에 거주하고 실제로 부산과 같이 잠재위험의 접근성이 더 높은 해안가에 위치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상기후에 덜 노출되어서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국토연구원(2012)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도시, 농어촌, 해안에 거주하는 사람이 대도시 내륙 거주민보다 11배 이상 기상재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20-30대의 경우 중장년층, 노년층에 비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에 신체적 취약도가 낮기 때문에 재난경험으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다. 환경부가 발간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에서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기상재해, 대기오염 및 알레르기로 인한 건강적 영향에 65세 이상 노인과 사회경제적 상태가 낮은 인구집단이 취약하며, 기온증가에 따른 곤충 매개 감염병과 잦은 홍수로 인한 수인성 감염병 또한 65세 이상 고령인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다음으로 감정(Affection)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앞서 정치성향에서 해석했던 것처럼 기후변화에 대한 개인의 입장과 정치성향, 가치

관이 연관되어 있는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개인이 기후변화에 대한 강한 가치판단 혹은 감정을 가지는 것이 흔하지 않거나 혹은 모두 중간 정도의 인식수준에서 머물러 있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고 볼 여지가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가치적 변수에서 물질주의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물질주의적 가치, 산업활동을 통한 경제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기후변화위험인식이 낮다고 볼 수 있다.

### 4) 기후변화정책 수용도 모형

다음으로 기후변화정책 수용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앞서 살펴본 설명변수들의 영향력을 다중회귀분석으로 추정하였다. 모형 해석에 앞서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검토한 결과 독립변수 간 VIF 지수는 1.05~2.048로 10미만으로 나타나고 공차한계 또한 모두 0.1 이상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오차의 독립성 검정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이 2.003으로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 〈표 15〉를 보면 F=12.475(p<.001)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수정된 $R^2$은 0.466으로 본 모형은 기후변화정책 수용도에 대해 46.6%의 설명력을 지닌다. 인구통계학적 요인 중 학력변수(대학교 졸업 이상)만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인지적 요인 중에서도 재난-기후변화 연관성 인식만이 정

(+)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앞서 기후변화위험인식 모형과 가장 큰 차이점은 경험적 요인 중 감정변수가 기후변화정책 수용도에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또한 가치적 변수인 물질주의는 정책 수용도 모델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새롭게 추가된 정부신뢰가 정(+)의 영향을 미쳤다. 표준화된 회귀계수 값을 통해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해보면 재난-기후변화 연관성 인식($\beta$=0.317) > 정부신뢰($\beta$=0.308) > 감정($\beta$=0.206) > 학력 더미($\beta$=0.142) 순으로 나타났다.

〈표 15〉**기후변화정책 수용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 | 기후변화정책 수용도 | | |
|---|---|---|---|
| | B | S.E | β |
| 성별 | -0.152 | 0.130 | -0.079 |
| 학력 | 0.327* | 0.161 | 0.142* |
| 연령 | -0.111 | 0.120 | -0.059 |
| 소득 | -0.419 | 0.442 | -0.073 |
| 보수 성향 | 0.073 | 0.167 | 0.027 |
| 진보 성향 | -0.109 | 0.124 | -0.057 |
| 기후변화 실재 | 0.139 | 0.081 | 0.136 |
| 책임귀인 | 0.073 | 0.062 | 0.090 |
| 연관성 인식 | 0.316*** | 0.076 | 0.317*** |
| 재난 경험 | 0.042 | 0.132 | 0.019 |
| 감정 | 0.208** | 0.071 | 0.206** |
| 물질주의 | -0.021 | 0.042 | -0.033 |
| 정부신뢰 | 0.206*** | 0.042 | 0.308*** |
| F값 | | 12.475*** | |
| $R^2$ | | 0.507 | |
| Adjusted $R^2$ | | 0.466 | |

*p<.05, **p<.01, ***p<.001

다음으로는 앞서 살펴본 통합 모형을 홍수·호우, 폭염, 코로나라는 세부 재난으로 구분해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각각의 변수 계수 값을 비교하였다. 결과는 아래 〈표 16〉과 같다.

〈표 16〉**기후변화정책 수용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재난별)**

| 변수 | Model 1. 홍수 | | | Model 2. 폭염 | | | Model 3. 코로나 | | |
|---|---|---|---|---|---|---|---|---|---|
| | B | SE | β | B | SE | β | B | SE | β |
| (상수) | 1.031 | 1.531 | | 0.685 | 1.596 | | 2.184 | 1.537 | |
| 성별 | -0.140 | 0.133 | -0.073 | -0.160 | 0.136 | -0.083 | -0.123 | 0.132 | -0.064 |
| 학력 | 0.297 | 0.164 | 0.129 | 0.337* | 0.168 | 0.146 | 0.323 | 0.164 | 0.140 |
| 연령 | -0.187 | 0.124 | -0.099 | -0.137 | 0.124 | -0.073 | -0.066 | 0.123 | -0.035 |
| 소득 | -0.277 | 0.449 | -0.048 | -0.197 | 0.460 | -0.034 | -0.566 | 0.455 | -0.098 |
| 보수 | 0.084 | 0.171 | 0.031 | 0.050 | 0.174 | 0.019 | 0.061 | 0.170 | 0.023 |
| 진보 | -0.066 | 0.126 | -0.034 | -0.041 | 0.129 | -0.021 | -0.131 | 0.127 | -0.068 |
| 기후변화 실재 | 0.158 | 0.083 | 0.155 | 0.184* | 0.085 | 0.180 | 0.200* | 0.080 | 0.197 |
| 책임 귀인 | 0.115 | 0.061 | 0.142 | 0.098 | 0.064 | 0.120 | 0.098 | 0.062 | 0.120 |
| 연관성 인식 | 0.201** | 0.066 | 0.222 | 0.178* | 0.080 | 0.179 | 0.137** | 0.041 | 0.223 |
| 재난 경험 | 0.286 | 0.249 | 0.068 | -0.120 | 0.211 | -0.035 | 0.073 | 0.156 | 0.027 |
| 감정 | 0.224** | 0.073 | 0.221 | 0.248** | 0.073 | 0.245 | 0.242** | 0.072 | 0.240 |
| 물질주의 | -0.032 | 0.042 | -0.050 | -0.030 | 0.043 | -0.047 | -0.030 | 0.042 | -0.046 |
| 정부신뢰 | 0.192*** | 0.043 | 0.288 | 0.185*** | 0.045 | 0.277 | 0.218*** | 0.043 | 0.326 |
| F값 | 11.523*** | | | 10.753*** | | | 11.654*** | | |
| $R^2$ | 0.487 | | | 0.469 | | | 0.490 | | |
| Adj. $R^2$ | 0.444 | | | 0.426 | | | 0.448 | | |

*p<.05, **p<.01, ***p<.001

세부 재난별 모형으로 다중회귀분석 결과 세 모형 모두에서 통합 모형과 동일한 변수(재난-기후변화 연관성 인식, 감정, 정부신뢰)가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지만 재난 종류에 따라 차이가 존재했다. 특히 Model 2 폭염 모형에서는 Model 1 홍수·호우 모형, Model 3 코로나 모형과 다르게 '학력'이 상대적인 영향력의 값이 작긴 하지만 유의수준 0.05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폭염, 코로나 모형에서는 홍수·호우과 다르게 '기후변화 실재'가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정책 수용도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결과를 논의하면 통합 모형(표 15)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수 중 학력변수만이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구통계학적 변수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은 수원, 인천, 논산 대상의 서베이에서 연령, 교육 등 인구통계학적 변수가 기후변화 적응행동 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고재경·이우평(2016)의 연구결과에 부합한다. 하지만 학력더미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데 전반적으로 대입 위주의 고등교육보다 대학 입학 이후 대학 내외의 다양한 교육기회로부터 기후변화위험과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에 대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아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정책수용은 정치적 선택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치성향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기존 가설은 기각되었으며 정치성향 변수가 유의미하지 않은 이유는 앞서 기술한 기후변화위험인식에서의 해석과 유사하다고 생각된다.

두 번째로, 인지적 변수 중 재난-기후변화 연관성 인식은 기후변화 위험인식 모형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의 영향은 홍수·호우, 폭염, 코로나 세 모형에서 모두 나타났으며 이는 단일 재난을 기후변화와 연관된 재난,

즉 기후위험의 하위 위험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기후변화정책 수용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 번째로 경험적 변수, 그 중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부정적 감정(Affection)이 기후변화정책 수용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재난의 직접 경험 여부가 유의미하지 않은 변수로 나타난 것은 직접 피해를 경험한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적응 행동을 적극적으로 취한다는 Harries(2012)의 결과에 반대되는 한편 기후변화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접 피해 경험과 기후변화 영향의 체감은 홍수, 폭염 관계없이 모두 기후변화 대응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국내 연구결과와 유사하다(고재경・이우평, 2016). 재난(피해)경험이 유의미하지 않은 변수로 나타는 것은 앞서 기술한 기후변화위험인식에서의 해석(서울이라는 공간적 특성, 20-30대 청년층의 기후변화에 대해 비교적 낮은 신체적 취약성)을 다시 한 번 적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이번에는 감정(Affection)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을까? 이에 대한 해석에 있어 앞서 살펴본 감정 휴리스틱(affect heuristic)개념을 적용해볼 수 있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전문가와 일반인의 위험인식과 정책 인식을 비교한 연구에서 일반인은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서 감정 휴리스틱에 근거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모습을 보였다(한빛나라 외, 2020). 해당 연구에서는 그 원인을 일반인이 복잡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편적이고 파편화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다시 말해 인지적 노력을 최소화하려는 인간의 '인지적 구두쇠'(cognitive miser)와 같은 특성과 시간, 비용, 지능의 한계로 사람들은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을 바탕으로 판단을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대안을 이성

적으로 평가한 후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기보다는 간편한 의사결정 방식인 휴리스틱을 선택하게 되며 정보가 부족하거나 문제가 복잡한 상황에서 이러한 편향이 더욱 촉진된다. 본 연구에서 설문지에 기후변화정책에 대한 설명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정책)에 대한 기존의 정보부족이 기후변화 정책수용 결정에 있어 감정(Affect) 변수의 영향력을 크게 만들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 근거로 기후변화정책 수용도를 구성하는 5개 항목 중 정책의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정책인지' 항목은 7점 중 완화정책에서는 3.89점, 적응정책에서는 3.66 점으로 정책수용도를 구성하는 다른 측정도구들보다 현저하게 낮은 값을 보였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 및 적극적 참여가 요구되는 시민참여형 정책 결정 과정과 이행 과정에 있어 방해요소로 작용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소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추가된 정부신뢰가 기후변화정책 수용도에 대한 영향력이 큰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시민들의 정부신뢰도가 높을수록 정책집행 시 동의를 얻어내기 용이하다는 김화연 외(2018)의 연구와 정부신뢰가 형성되어있는 경우 공동체 차원의 기후변화위험 대응의지가 높다는 기존 연구결과에 부합한다(Hagen et al., 2016; 고재경・이우평, 2016).

추가적으로 세부 재난별 모형 중폭염모형(Model 2)에서는 학력변수와 기후변화 실재가, 코로나 모형(Model 3)에서는 기후변화 실재가 추가적인 유효 변수로 나타났다. 특히 기후변화 실재가 홍수가 아닌 폭염, 코로나에서만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능한 한 가지 해석은 이례적인 홍수, 호우는 정상적인 기후현상을 벗어난 기후재난으로 명확히 인식되는

반면 폭염은 계절변화에 따른 자연적인 온도 증가로 인식되거나 코로나의 경우 명확한 기후변화의 하위 재난으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자연적인 현상과 혼동되는 기후재난이나 코로나와 같이 기후변화와의 상관성이 명확하게 밝혀지거나 이러한 인식이 공중에 알려지지 않은 신종 재난의 경우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기후변화 실재 믿음'이 기후변화정책 수용도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 Ⅴ. 결론

## 1. 요약 및 시사점

기후변화문제는 대표적인 사악한 문제(wicked problem)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모두가 익숙하게 기후변화가 문제라고 하지만 매우 다각적이고, 정의하기 어렵고, 추상적이고 와 닿지 않는다는 특징 때문에 대응행동을 촉진하기 어려운 문제를 지니고 있다. 2007년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97%가 기후변화를 인지하고 있고, 92.6%가 심각하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후변화성과지수(CCPI)가 '매우 미흡' 하다는 점은 이러한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 연구는 이러한 인식과 대응행동 간의 괴리가 왜 발생하는가? 라는 연구질문에서 시작해 두 변수(인식, 대응행동)에 대한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각 실증모형을 비교해봄으로써 실마리를 찾고자 했다. 기후변화 현상의 인지 여부와 심각성 정도를 묻는 기존 '기후변화인식' 을 '기후변화위험인식(Climate change risk perception)' 으로 보다 구체화하고 성공적인 기후변화대응에 있어 정책대상자들이 기후변화정책의 목적과 정당성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정도, 다시 말해 정책수용도가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기후변화정책 수용도(Climate policy acceptance)를 주요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특히, 젊은 층이 향후 기후변화정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를 수용하고 행동으로 실천해나가야 하는 핵심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대에 비해 기후변화인식이 낮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들의 기후변화위험인식과 정책수용도의 영향요인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van der Linden(2015)의 기후변화위험인식모형(Climate Change Risk Perception Model, CCRPM)을 바탕으로 인구통계학적 요인, 인지적 요인, 경험적 요인, 가치적 요인에 속한 각 변수들이 기후변화위험인식과 기후변화정책 수용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한국의 20-30대의 경우 기후변화의 체감 정도가 낮고 본인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아 이것이 낮은 기후변화위험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재난의 직접경험과 재난-기후변화 연관성 인식 변수가 심리적 거리감을 단축시켜 유효한 결정요인이 될 것으로 보았다. 재난 종류에 있어서는 기존에 많이 다뤄져 왔던 이상기후현상인 홍수·호우, 폭염과 함께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19를 기후변화로 인한 하위 위험(전염병)으로 포함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후변화위험인식에는 인지적 요인 중 기후변화 실재 믿음, 재난-기후변화 연관성 인식이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본인의 재난 경험과 감정과 같은 경험적 요인은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가치적 요인인 물질주의는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이 세 변수는 홍수·호우, 폭염, 코로나19로 재난별 모형을 구분한 경우에도 각각의 방향을 유지한 채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상대적 영향력($\beta$) 비교시 기후변화가 실재 믿음이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후변화정책 수용도에는 학력(대학교 졸업 이상), 재난-기후변화 연관성 인식, 감정, 정부신뢰가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재난별 모형을 구분했을 때 폭염, 코로나 모형에서 기후변화 실재 믿음이 다시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상대적 영향력을 봤을 때 정부신뢰와 기후변화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가장 큰 영향요인

으로 나타났다.

두 모형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2,30대의 기후변화위험인식은 기후변화의 실재 믿음과 재난-기후변화 연관성 인식과 같은 인지적 요인(congnitive factors)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위험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후변화가 실재한다는 점과 이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재난들에 대해 과학적 사실에 기반을 두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기후변화가 실재한다는 믿음은 위험인식을 가장 높이는 중요한 변수임에도 국내에서 2,30대의 기후변화부정론의 비중이 세대 중 가장 높고 이러한 특징이 다른 국가와 차별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양질의 정보제공을 통해 기후변화가 실존하며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해보인다. 정규 교육과정에서 적극적인 환경교육을 시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가 다양한 인터넷매체를 통해 기후변화 회의론, 부정론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다는 박희제·허주영(2012)의 논의를 참고하여 젊은 층의 사용도가 높은 매체를 활용한 소통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구체적인 재난과 기후변화 간의 연관성을 인식하는 정도는 위험인식과 정책수용도에 일관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심리적 거리감을 줄여 기후변화위험인식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던 재난의 직접경험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남으로써 2,30대는 단순히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을 때보다 그 재난이 기후변화와 연관되어있는지 인식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기후변화를 위험하다고 생각하며 기후변화정책의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각각의 재난과 기후변화가 왜 연관되어 있는가?” 라는 추가적인 설문문항에서 발견된 기후

변화에 대한 개념적 혼동이다. 예를 들어 폭염과 기후변화가 연관되어있다는 인식은 7점 중 6.25로 아주 높은데 많은 수의 응답자가 그 이유로 오존층 파괴를 들었다. 또한 이번 여름이 덥지 않았거나, 겨울이 점점 추워진다는 응답과 같이 기후변화와 계절변화를 혼동하거나 기후변화를 지구온난화라는 현상으로 제한적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개념적 혼동은 전문가(혹은 정부)와 일반인 간 기후변화와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소들에 대한 원활한 소통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고 사람들의 합리적 의사선택을 방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와 이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영향, 재난들에 대해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후변화지식의 파편화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기후변화정책 수용도 모형에서 2,30대는 기후변화에 대한 부정적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정휴리스틱에 기반한 의사결정은 의사결정사안에 대한 시민들의 정보부족 상황에서 촉진되는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완화정책・적응정책 내용에 대한 2,30대의 낮은 인지 수준은 이를 뒷받침한다. 감정에 기반한 의사결정은 가변적일 수 있어 기후변화정책에 대한 안정적인 지지와 수용을 이끌어내기 어렵고 정책결정에 편향이 개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정책의 내용과 의제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가공해 소통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정책수용도 모형에서 정부신뢰 변수가 통합 및 세부재난별 모형에서 모두 영향력이 큰 변수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기후변화정책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입안 및 시행 과정 중 높은 정부 신뢰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2. 연구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제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우선 연구수행에 있어 이례적인 팬데믹(pandemic)으로 인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현실적 한계로 인해 온라인 설문을 활용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자발적 표본 오류(voluntary response bias)를 주의해야 한다. 또한 연구 결과는 서울에 거주하는 20-30대의 기후변화위험인식과 기후변화 정책 수용도에 대한 결정요인으로 제한적으로 해석된다. 이후 다양한 연령대를 추가적으로 표집하거나 서울시와는 또 다른 지리적 환경을 가지고 있는 타 시도를 대상으로 분석 후 연령별, 지역별 비교를 통해 또 다른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이 연구에서는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한 기후변화인식 연구를 설문항목 구성에 참고하여 청년층의 특성을 더욱 반영할 수 있는 변수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청년층에게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할 수 있는 취업여부와, 1인 가구 청년과 가족과 거주하는 청년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주유형 및 조건, 기후변화에 대한 심리적 반응(우울감, 불안), 사회변화에 대한 효능감의 정도 등이 이들의 기후변화위험인식을 설명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향후 20-30대를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심층면접을 통해 이들의 기후변화위험인식과 정책수용도의 영향요인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세 번째로, 이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위험인식과 기후변화정책 수용도 각각의 영향요인과 구조를 비교분석하였지만 사용된 설명변수들이 기후변화위험인식을 매개로 기후변화정책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이 있

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해 직접효과, 간접효과의 방향과 강도를 구분함으로써 현재의 모형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사용된 기후변화 위험인식과 재난인식은 모두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이다. 주관적 위험인식 또한 중요하지만 동일한 현상이나 피해에도 각자가 느끼는 바의 편차는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지표, 수치를 활용한 연구를 제안할 수 있다. 향후 GIS 등을 활용, 실제 이상기후 현상의 지리적 범위와 피해 규모, 공간적 특성 등을 변수로 활용한 실증분석 또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 참고문헌


김민정(2020). 전염병 대유행과 기후변화 측면의 대비. 국가관리 BRIEF, 51호,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김서용·김선희(2016). 기후변화 의식과 대응행동 결정요인 분석. 행정논총 54(1); 179-206.

녹색연합 보도자료. “대다수 국민, 코로나 19와 폭우 겪으며 기후위기 심각성 더욱 절감”. 2020년 09월 03일 발표.

박희제·허주영(2012). 누가 기후변화회의론자인가?: 정보획득노력, 과학신뢰도, 정치성향이 기후변화인식에 미치는 영향. 환경사회학연구 ECO, 16(1), 71-100

변지은(2014).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민의 기후변화인식 분석: 세종대학교 대학원 기후변화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송보경 외(2012). 기후변화와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대한 연구, 한국소비자학회 학술대회

양진명(2010). 정부신뢰가 정책수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미국산 소고기 촛불집회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오도교 외(2010). 기후변화대응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분석 : 대전광역시 산림부분 정책을 중심으로. Journal of agriculture science. 37(1) 19-25.

유달순(2007). 사회통계조사의 인터넷 조사 적용가능성 검토, 통계개발 연구보고서, 1-49.

윤순진(2020). “코로나 19 위기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열쇠, K-그

린 뉴딜:의미와 방향," 열린정책 6호: 98-111.

이기영·김강민(2017). 지진경험 경주시민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재난관련 경험 및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54: 83-110.

이승준·김영욱(2019). 한국인의 기후변화 위험인식 유형에 따른 소통방안, 28(1); 1-31.

이승한·윤순진(2014). 한국인의 기후변화 인식 유형. 환경사회학연구 ECO, 18(2), 119-167

이지윤(2018). 위험커뮤니케이션이 기후변화 대응정책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정숙임(2016). 기후변화 대응 정책방향에 관한 대학생 인식 분석 연구. 호서대학교 대학원 에너지기후융합기술학과 환경에너지 경제 및 정책 전공 박사학위논문

최아란(2018). 기후변화 위험인식과 친환경 행동에 대한 탐색적 연구 : 대학생 집단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미래응용과학학과 석사학위논문

한국콘텐츠진흥원(2015). 세대와 방송: 밀레니얼 세대 vs. 베이비붐 세대의 시청자 분화 현상을 중심으로. 방송트렌드&인사이트 6-7, vol.01

한빛나라 외(2020). 한국인의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 인식 지형 도출 : 심층 인터뷰를 통한 전문가와 일반인의 위험 인식 비교, 한국언론정보학회보, 101, 465-505.

한현진 외(2010). 노인집단의 기후변화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회 춘계학술대회

환경부(2007). “기후변화에 따른 전국민 의식조사 결과보고서“

Akerlof, K., Maibach, E. W., Fitzgerald, D., Cedeno, A. Y., & Neuman, A. (2013). Do people “personally experience” global warming, and if so, how, and does it matter? Global Environmental Change, 23(1), 81-91.

Belinda Xie, Marilynn B. Brewer, Brett K. Hayes, Rachel I. McDonald, Ben R. Newell(2019). Predicting climate change risk perception and willingness to act,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65, ISSN 0272-4944.

Bjoern Hagen et al.(2016). European climate change perceptions: Public support for mitigation and adaptation policies, Environmental Policy and Governance, 26, 170-183.

Bichard, E. and A. Kazmierczak.(2012), Are homeowners willing to adapt to and mitigate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Climatic Change, 112(3-4), 633-654.

Burningham, K., J. Fielding, and D. Thrush.(2008), 'It'll never happen to me': Understanding public awareness of local flood risk, Disasters, 32(2), 216-238.

Cori, L., Bianchi, F., Cadum, E., & Anthonj, C.(2020), Risk Perception and COVID-19,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7(9), 3114.

D. McAdam.(2017), Social movement theory and the prospects for

climate change activism in the United States. Annu. Rev. Polit. Sci., 20, 189-208.

Howe et al.(2019), How will climate change shape climate opinion?, Environmental Research Letters 14(11).

IPCC(2014a), Climate Change 2014: Synthesis Report.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s I, II and III to the Fif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Core Writing Team, R.K. Pachauri and L.A. Meyer (eds.)]. IPCC, Geneva, Switzerland, 151 pp.

_____ (2014b), Summary for policymakers. In: Climate Change 2014: Impacts,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Part A: Global and Sectoral Aspects.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I to the Fif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Field, C.B., V.R.Barros, DJ. Dokken, KJ. Mach, M.D. Mastrandrea,T.E. Bilir, M. Chatterjee, K.L. Ebi,Y.O. Estrada,R.C.Genova, B. Girma, E.S. Kissel, A.N.Levy, S.MacCracken,P.R. Mastrandrea ,and L.L. White (ed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United Kingdom and New York, NY, USA, pp. 1-32.

J.R. Fownes, S.B. Allred.(2019), Testing the influence of recent weather on perceptions of personal experience with climate change and extreme weather in New York state Weather, Climate Sociology. 11; 143-157.

Leiserowit, A.(2005), American Risk Perceptions: Is Climate Change Dangerous?. Risk Analysis 25(6): 1433-1442.

_____.(2006), Climate change risk perception and policy preferences: the role of affect imagery, and values, Climatic Change 77: 45-72.

Lorrain Whitmarsh.(2008), Are flood victims more concerned about climate change than other people? The role of direct experience in risk perception and behavioural response, Journal of Risk Research, 11:3, 351-374.

Manuel Frondel, Michael Simora, Stephan Sommer(2017), Risk Perception of Climate Change: Empirical Evidence for Germany, Ecological Economics, 137: 173-183.

Menny et al.(2011), General knowledge about climate change, factors influencing risk perception and willingness to insure, ZEW Discussion Papers No.11-060.

Nelson, B. (2020), The Next Coronavirus Nightmare Is Closer Than You Think. The Daily Beast, Retrieved from https://hsrc.himmelfarb.gwu.edu/sphhs_global_facpubs/493

Sander van der Linden(2015), The social-psychological determinants of climate change risk perceptions: Towards a comprehensive model,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4: 112-124.

Talbot M.Andrews, Oleg Smirnov.(2020), "Who feels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Global Environmental Change, 65. 102-164.

World Health Organization(2018), COP24 special report: health and climate change. World Health Organization.

## ■ 부록

# < 설문지 >

- 각 질문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정답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답변보다는 귀하의 솔직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귀중한 시간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꼭 마지막 페이지까지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 1. 기후변화인식

| | 기후변화 위험인식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약간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약간 그렇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R1 | 나는 지구온난화 또는 기후변화에 대해 잘 알고 있다. | | | | | | | |
| R2 |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노출(폭염, 홍수, 극한기후 등)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한다. | | | | | | | |
| R3 |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은 인간사회의 능력과 노력으로 통제할 수 있다. | | | | | | | |
| R4 | 나는 기후변화로 초래될 위험이 두렵게 느껴진다. | | | | | | | |
| R5 |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은 과학적으로 잘 분석 및 예측되고 있다. | | | | | | | |
| R6 |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문제는 익숙하지 않은 이슈이다. | | | | | | | |
| R7 |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은 다음세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 | | | | | | |
| R8 | 기후변화는 향후 나의 삶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 | | | | | |
| R9 | 기후변화는 향후 자연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 | | | | | |
| R10 | 기후변화는 향후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 | | | | | |
| R11 | 기후변화는 우리나라에 심각한 사회경제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 | | | | | |
| R12 | 기후변화는 실재하는 문제이며 진행 중이다. | | | | | | | |
| R13 | 기후변화는 많은 부분 인간행위로부터 비롯되었다. | | | | | | | |

## 2. 코로나19와 홍수·폭염 경험 및 위험인식

| | 코로나19 경험 | 예 | 아니오 |
|---|---|---|---|
| C1 | 나는 코로나 19의 확진경험이 있다. | | |
| C2 | 나는 코로나 19 검사 및 지기격리 경험이 있다. | | |
| C3 | 나의 가족 및 주변인(친구, 동료) 중 확진경험을 지닌 사람이 있다, | | |
| C4 | 나의 가족 및 주변인(친구, 동료) 중 검사와 자가격리를 했던 사람이 있다. | | |

| | 코로나19 위험인식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약간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약간 그렇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C5 | 코로나19은 발생원인에 있어서 기후변화와 관련되어있다. | | | | | | | |
| C5-1 | (1.2,3을 선택하신 경우)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기술해주십시오. | | | | | | | |
| C5-2 | (5,6,7을 선택하신 경우)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기술해주십시오. | | | | | | | |
| C6 | 신종전염병의 등장과 확산에 있어 기후변화는 관련성이 높다. | | | | | | | |
| C7 | 기후변화문제의 해결 없이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다시 발생할 확률이 높다. | | | | | | | |

| | 홍수 경험 | 예 | 아니오 |
|---|---|---|---|
| F1 | (최근 5년 이내) 나는 홍수와 호우로 인한 금전적 혹은 신체적 피해 경험이 있다. | | |
| F2 | (최근 5년 이내) 나의 가족 및 주변인(친구, 동료) 중 홍수 및 호우로 인한 금전적 혹은 신체적 피해를 겪은 사람이 있다. | | |

| | 홍수 위험인식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약간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약간 그렇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F3 | 홍수와 호우는 발생원인에 있어서 기후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 | | | | | | |
| F3-1 | (1.2,3을 선택하신 경우)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기술해주십시오. | | | | | | | |
| F3-2 | (5,6,7을 선택하신 경우)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기술해주십시오. | | | | | | | |
| F4 | 기후변화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잦은 장마, 홍수와 같은 이상기후는 다시 발생할 확률이 높다. | | | | | | | |

| | 폭염 경험 | 예 | 아니오 |
|---|---|---|---|
| H1 | (최근 5년 이내) 나는 폭염으로 인한 금전적 혹은 건강상의 피해 경험이 있다. | | |
| H2 | (최근 5년 이내) 나의 가족 및 주변인(친구, 동료) 중 폭염으로 인한 금전적 혹은 건강상의 피해를 겪은 사람이 있다. | | |

| | 폭염 위험인식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약간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약간 그렇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H3 | 폭염은 발생원인에 있어서 기후변화와 관련성이 높다. | | | | | | | |
| H3-1 | (1.2,3을 선택하신 경우)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기술해주십시오. | | | | | | | |
| H3-2 | (5,6,7을 선택하신 경우)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기술해주십시오. | | | | | | | |
| H4 | 기후변화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심각한 폭염은 다시 발생할 확률이 높다. | | | | | | | |

## 3. 기후변화정책 수용도

- 기후변화 대응정책 수용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완화정책/적응정책)에 대한 설명을 숙독하신 후에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항목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질문구성으로 각각 5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 기후변화 대응정책 | | |
|---|---|---|
| | 기후변화 완화정책 | 기후변화 적응정책 |
| 목적 |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등) 배출원을 감소시키기 위함<br>(사전적 처방의 성격) | 기후변화로 인한 현재, 미래의 피해를 피하거나 그 영향규모를 줄이기 위함<br>(사후적 조치의 성격) |
| 예시 | ① 석탄화력발전 축소·신재생에너지 확대<br>② 대중교통 활성화<br>③ 건축물에 높은 에너지효율기준 요구<br>④ 탄소 배출권거래제<br>⑤ 기업의 탄소배출 규제<br>⑥ 친환경차 보급 등 | ①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재해 관리<br>② 폭염, 홍수 등 재난에 대한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의 보호<br>③ 생물종 보전<br>④ 환경영향 평가에 기후변화 영향 고려 등 |

| 기후변화 완화정책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약간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약간 그렇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MP1 | 나는 평소 다른 사람들보다 기후변화 완화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다. | | | | | | | |
| MP2 | 나는 기후변화 완화정책이 반드시 수립 및 실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 | | | | | |
| MP3 | 나는 정부의 기후변화 완화정책이 온실가스 감축 및 흡수원 증가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 | | | | | | |
| MP4 | 나는 정부의 기후변화 완화정책 수립 및 이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향이 있다. | | | | | | | |
| MP5 | 나는 정부의 기후변화 완화정책의 집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감수할 생각이 있다. | | | | | | | |
| 기후변화 적응정책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약간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약간 그렇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AP1 | 나는 평소 다른 사람들보다 기후변화 적응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다. | | | | | | | |
| AP2 | 나는 기후변화 적응정책이 반드시 수립 및 실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 | | | | | |
| AP3 | 나는 정부의 기후변화 적응정책이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의 회피 및 감소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 | | | | | | |
| AP4 | 나는 정부의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 및 이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향이 있다. | | | | | | | |
| AP5 | 나는 정부의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집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감수할 생각이 있다. | | | | | | | |

## 4. 정부 신뢰도

| 정부신뢰도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약간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약간 그렇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B1 | 나는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 | | | | | | |
| B2 | 정부는 정책의 수립, 집행에 있어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 | | | | | | |
| B3 | 정부는 정책의 협상능력과 조정능력을 갖추고 있다. | | | | | | | |
| B4 | 정부는 특정 집단이 아닌 국민 다수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 | | | | | | |
| B5 | 정부가 발표하는 것(정보나 통계자료)들을 믿을 수 있다. | | | | | | | |

## 5. 전반적 태도 및 가치

| 전반적 태도 및 가치 | | 매우 긍정적이다 | 긍정적이다 | 약간 긍정적이다 | 보통이다 | 약간 부정적이다 | 부정적이다 | 매우 부정적이다 |
|---|---|---|---|---|---|---|---|---|
| A1 | 나에게 기후변화(지구온난화)는 | | | | | | | |
| | | 매우 호의적이다 | 호의적이다 | 약간 호의적이다 | 보통이다 |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 | 호의적이지 않다 | 매우 호의적이지 않다 |
| A2 | 전반적으로, 내가 기후변화(지구온난화)에 느끼는 감정은 | | | | |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약간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약간 그렇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A3 | 기후변화 문제를 떠올렸을 때 나는 슬프거나 우울하다. | | | | | | | |
| 물질주의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약간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약간 그렇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M1 | 환경보존보다 경제발전이 우선이다. | | | | | | | |
| M2 | 경제발전이 된 다음에 환경보호를 하는 것이 순서이다. | | | | | | | |

## ■ 통계 분류문항과 기타 문항입니다.

(본 설문의 마지막 세션입니다. 답변은 학술적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남성 여성

**Q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Q3.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중학교 졸업 및 그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재학
⑤ 대학원 졸업(석사) 이상

**Q4. 귀하의 서울특별시 내 거주 자치구를 입력해주십시오.**

(　　)

**Q5. 귀하의 월평균 소득 범위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0만원 미만

②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③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④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⑤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⑥ 600만원 이상 (　　만원)

**Q6. 귀하의 정치적 성향을 선택해 주십시오.**

① 매우 보수 ② 보수 ③ 중도 ④ 진보 ⑤ 매우 진보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Abstract

# Analyzing the Determinants of Climate Change Risk Perceptions and Acceptance of Climate Policy:

## Focusing on the Youth of Seoul Special City

PARK Jeongmin

Dept′ of Environmental Planning
Environmental Management Major

Th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started with the question where the inconsistency between the high level of public awareness of climate change in Korean society and the low level of responsive actions to mitigate climate change came from. In particular, this study aimed to focus on the climate change risk perception and acceptance level of climate

policy of the youth, given the especially low level of climate awareness of the 20s and 30s in Korea. To explore the determinants influencing these two dependent variables, we used a social-psychological model of climate risk perception containing cognitive, experiential, and socio-cultural factors. The conceptual model is tested empirically on a sample (N=172) of the 20s and 30s who lives in the city of Seoul, Korea. Results indicate that climate risk perceptions are strongly influenced by cognitive factors(belief in climate change, understanding the correlation between specific disasters and climate change) and cultural factor(materialism). Meanwhile, the acceptance of climate policy model showed cognitive factor(understanding the correlation between specific disaster and climate change), experiential factor(affect), and trust in government as significant factors with positive effects on acceptance of climate policy. Direct experience of climate disaster(heavy rain, heatwave, and Covid19(as an example of contagious diseases), which was expected to enhance the risk perception and policy acceptance of climate change, by shortening psychological distance on climate change, was identified as a non-significant factor in both analytic structures. Based on the results, It is therefore concluded that understanding the correlation and causal relationship between specific disasters and climate change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enhancing the risk perception and policy acceptance of climate change, regardless of types of disaster. Based on results, implications for theory and public risk communication are discussed.

**Keywords : Climate change, Risk perception, Policy acceptance, Climate policy, Risk communication, Youth studies**

***Student Number*** : 2019-20298